朝鮮日報
第二夕刊
二十八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東京特許 ツヨナール 수호人絹保强劑

佛蘇間國交斷絶切迫
各國大公使召還은그準備工作
巴里外交界消息通觀測

【巴里二十七日發同盟】英佛對蘇聯의 關係惡化가 傳하고잇는이지음 二十七日AP巴里電은 巴里外交界消息通의 觀測이라하여 佛蘇兩國의外交關係斷絶은 目睫에迫頭하엿다고 報道하여 各方面에重視되고잇다 卽AP電에依하면 레이노新首相은 最近歐洲主要首都駐箚의 大公使에對하여 召還命令을發하엿는데 이는 스릿츠駐佛蘇大使의 召還要求에對하여 蘇聯과의 外交關係를 斷絶할準備工作으로보인다 一方巴里紙는 蘇聯과의外交關係의斷絶을 强要하여 佛國은不得已蘇聯을 敵國으로 取扱하고 政策을이에따라 改變하게될것이라고 論하고잇는데 이는佛國의 對蘇輿論의 惡化를말하는것이라한다 (寫眞上은 스타린 下는 레이노氏)

佛首相訪英出發

【巴里二十七日發同盟】레이노首相은 二十七日午後四時 倫敦으로 向發하엿다 同首相은 倫敦到着後 쳄버린首相과 會見하여 英佛兩國의 今後의 積極的共同工作에 關하여 協議할것으로보인다 特히 對伊交涉의 進展을 圖하기 爲하여 羅馬에 特使를 派遣할 問題等에 關하여 協議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레이노首相이 廿五日 카리리아駐佛伊大使를 引見한것과 퐁세駐伊佛大使가 羅馬를 出發한것은 佛의對伊積極外交를 示唆하는것이라하여 注目되고잇다

佛、大公使召還 各國事情檢討?

【巴里二十七日發同盟】佛政府는 지난十九日駐蘇바야르代理大使를 通하여 蘇聯政府에對하여 스릿츠駐佛蘇聯大使의 召還을 要請한것이 判明되엿다 이것은佛의 對蘇强硬方針을 示唆하는것이라 하여 觀者의注目을 끌고잇다 勿論이에압서 佛政府는 在佛商務官事務所의 家宅搜査가 잇섯고 兩事件이모두 레이노內閣成立後에잇슨것인바 레이노新首相自身도 同月二十二日組閣完成當日의 午後下院에서의施政演說에서 對蘇强硬方針을 示唆하엿다 右에 關聯하여 目下病으로 歸國中의 나자르駐蘇大使의 歸任如何가問題가되어잇는데 파리미디紙에依하면 나자르大使의 病은 언제恢復될지不明하다고한다 이리하여 佛의對蘇態度는 益益强硬해질것으로보인다 一方레이노首相은 近近某某駐伊大使에召還命令을發할 模樣으로 이어서各國駐箚大公使도 本國에召還하여 各現地의 最近情況을 親히聽取한후 獨逸의 外交攻勢에 對抗하여 佛外交의一大刷新을 企圖할것으로보인다

웰스次官 루大統領과會見

【華盛頓二十七日發同盟】歐洲和平打診旅行을 마친 웰스國務次官은 二十八日夕刻 又는二十九日은 루스벨트大統領과 會見하고 旅行結果를 詳細報告할 豫定이다 웰스次官의 報告要旨는 이미旅行中 歐洲各地에서 大統領과의 會見에서는 異只補足說明을하엿다는報告된模樣으로 大統領의 會見報告結果로 米國의 對歐洲政策에 和平工作으로 向할것으로는 보이지안는데 卽웰스次官이 歐洲에 派遣된當時나 歸還後나 和平氣運는全然보이지안는다 그와反對로 웰스次官이본實情은 平和의機運이아니고 獨蘇伊의 接近工作이나 米國은 今後 一層英佛援助에積極的立場을 取하지안홀까고보이는데 何如튼 平和工作은 全然보이지안는다

阮爲替管理局은 이가튼米弗賣却을 中止하기로決定하엿다 小切手 其他이에類하는 類似證券은 本令의適用에는 除外되어잇다

蘇聯에援蔣中止를 獨逸에서勸告乎
全力을歐洲에傾注토록

【巴里發電】佛國은 政變이一段落되자 발칸方面에서의 獨蘇의 新動向과 支那에서의 汪精衛의 新中央政府 樹立問題에 對하여 關心을가지고 그推移를 注目하고잇다 발칸問題에對하여佛國輿論을 綜合하면 獨蘇伊三國協定의調印은 近近實現을 보게될것인데 다음理由에依하여 그實質的效果에關하여는 크게疑慮를 할必要가업다한다

一、蘇聯은 現下歐洲戰爭을 好機로하여 다뉴브地域과 黑海方面에서의 蘇聯의地盤을 强化하고저 발칸에서는 現狀維持를 希望하고잇다

二、獨逸도 西部戰線에서 英佛과 對峙하고잇는동안은 발칸의靜謐을 希望하고 발칸을獨逸의 經濟補給地帶로서 保全하려고 期하고잇다 勿論 獨逸은 匈牙利에對하여 政治的野心을 包藏하여 테레키匈牙利首相을 슈슈니크前墺地利首相의 地位에比하고잇서 匈牙利의運命은 發慮된다

三、伊太利는 依然 獨自的對外態度를 堅守할수밧게업다 웨그러냐하면 伊太利輿論은 蘇聯과의 接近을 强硬히反對하고잇고 他方 유고슬라비아에 對하여는 어떠한 政治工作을 進行하려는 意圖가 窺察된다

그리고 極東問題에 關하여는獨逸은 蘇聯을 動員하여 英國의 權益을 威脅하는데 努力하고蘇聯으로하여금 日本과의關係를調整하여 全力을 歐洲問題에 總動員케하도록 勸告하고잇다한다 그때문에獨逸은 蘇聯의蔣介石援助를 中止케하여 나아가서는蘇聯이蔣介石에 工作하여 日本의 主張을受諾하도록 하기를慫慂하엿다고傳한다 如何間 汪精衛氏의 新中央政府는 멀지안어 日本政府와 重慶政府와의間에 가로노힌 溝渠에다리를 노하주는 役을 마틀것이라하여 各般으로부터 注目을밧고잇다

閣僚議員御慰勞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二十八日 午前十一時五十分 米內首相以下 各閣僚 松平、小山、佐佐木、田子兩院正副議長以下 兩院議員 石渡書記官長以下 各政府委員을 宮中에 부르시사 正殿에서 賜謁하옵신후豐明殿에서 御慰勞의 惓念으로 賜饌을 하옵시다 一同은 感激하여 午後一時지나 退下하엿다

學習院卒業式

【東京電話同盟】學習院에서는 二十八日 午前九時半부터 御差遣의 閑院元帥宮殿下台臨下에 第五十回卒業式을 擧行하엿는데 中等科一年御在學의 賀陽宮治憲王、初等科五年의 久邇宮邦昭王、東久邇宮俊彦王、同四年의 賀陽宮章憲王、同二年의 伏見宮博明王、賀陽宮文憲王、李王世子各殿下、同一年의 李沖公子께서는 優等의 御成績으로各各 御學年을 마치옵섯다 이날아침 御差遣宮殿下께서는 山梨院長以下 教職員學生等 奉迎裡에 午前九時半 學習院에 御着、院長으로부터 成績表를捧呈後 式場에 臨御하사 御在學의各宮殿下께 終了證書捧呈이 잇슨후 一般學生에게證書授與 優等學生에 各各御下賜品의 傳達式이 잇슨다음 時局下特히 卒業生及在學生을 訓戒하시고 山梨院長、松平宮相의 告辭가 잇슨後 卒業式을 終了하엿다

最後의 聯合委員會와 解散式後 王克敏、梁鴻志兩氏의 握手

加奈陀爲替管理强化

【오타와廿七日發同盟】加奈陀政府는 爲替管理實施後도 加奈陀에還流하는 加奈陀紙幣及 硬貨에對하여는 米弗을賣渡하고잇섯는데 오는四月一日以降은 加奈

英獨空襲戰活潑化
大陸派遣空軍司令部發表

【倫敦二十七日發同盟】英國大陸派遣空軍司令部는 二十七日各各左와 如히發表하엿다

昨二十六日我空軍은 멧스附近에서 獨機二機를 擊墜하엿는데 이는西部戰線에서 空軍活動이漸漸 活潑化한 證左이다 卽이날戰鬪機에 護衛된 敵偵察機七機編隊를發見하고 我戰鬪機는 直時이를邀擊하엿다 이사이에 我偵察機一機는 敵戰鬪機九機의 編隊와抗戰하여 敵機二機가 火焰에 싸여墜落되는것을 目擊하엿다 我方도 戰鬪機一機가 擊墜되엿는데 搭乘者는파라슈트로 無事危地를 脫하엿다

空軍省發表 沿岸司令部所屬 飛行機는 二十七日北海海上 偵察航行中의 獨海軍哨戒艇一隻을發見하고 直時 爆擊을敢行하여 이를擊沈하엿다

羅國에經濟壓迫
獨、强硬通牒을發送

【倫敦發電】反英佛陣營의 外交攻勢를 關聯하고 至今全歐의關心은 발칸特히 羅國問題에 集中되엿는데 同問題에 關하여는 여러가지의 臆測이잇서 그眞相을 把握하기에 困難하다 그러나 그眞相은 大體 다음갓다고 할수잇으로 諒解된다

一、獨逸은羅國에서의 石油及 穀物의 獨占權獲得을 希求하여 羅國에對하여 壓迫의손을加하고잇스며 羅國에對하여 經濟問題討議에關한 强硬通牒을 發하엿다 이經濟問題의討議는 獨逸의 全面的인勢力下에 羅國을시려하는 羅國에對하여는 가장 困難한 問題이고 이때문에 羅國은 獨逸의 壓迫에 措抗하려고 英國의 經濟的援助를 圖謀하여 財務省 總務長官 요단氏를 英國에 派遣하려고 하고잇다

獨逸이 그東南國境을 一聯의弱化된 從屬的인中立諸國에對하여 西部戰線의 無風狀態를利用하여 발칸諸國에 對하여强力的인經濟的壓迫의손을 뻐치고 이리하여 長期戰에 對한全面的準備를하려고企圖함은 明瞭한일이다 벌서 西部戰線은 지그프리드要塞線에依하여 封印되고 南部國境線은獨伊樞軸에 依하여 確保되고北部國境은 北歐諸國에對한 間斷업는 壓迫에依하여 封印을 베풀랴고하고잇다 獨逸이 果然이 발칸戰術에 成功하나 안이나의問題는 主로 一、戰爭의不活潑狀態의持續如何 二、獨伊蘇三國의 協力如何 等 二點에달려잇다 第一의最近狀況 且活潑하게된 英獨兩空軍 相互의 出擊은 特히 注目할만하다 第二의點은 倫敦에서의 消息通觀測에依하면 蘇聯은 高價의對芬戰에 쓰라린經驗을 맛

獨逸油槽船 도나우河遡航

【베오그라드二十七日發同盟】도나우河의 解氷期到來와함께 羅國의 石油에對한 獨逸의 積極的活動이 開始될것은 豫想되는바 二十七日에 既然合計一萬八千噸의石油를 積載한 三十隻의 獨逸油槽船이 今年度最初의 도나우河遡航을 開始하엿다 아직 氷塊가떠잇는 도나우江에 벌써 輸送을開始한것은 獨逸이 戰時에備하여 蘇聯及羅國의 石油貯藏政策을遂行할 決意한것을 示唆하는것으로서 注目된다

五月末端境期까지 雜穀이移入된다
湯村農林局長歸任車中談

【釜山電話】內地雜穀의移入 問題에就하여 東京에出張中이든 湯村農林局長은 二十八日朝 釜山上陸 아카쓰키로 歸京하엿는데 車中에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米、麥、雜穀의 豫定에依한 內地雜穀의移入이 約束대로 實行되지 안흐므로 그促進을 爲하여 中央의 當局과 여러가지로 交涉한結果 五月中旬의 端境期까지에는 豫定數量대로 移入될 豫想이섯다 米、麥의消費比例는 內地는 八分과 二分、朝鮮은 反對로 三分五厘와 六分五厘로되어잇서 朝鮮으로서는 食糧의大部分을占領하는 雜穀의 補給은 가장必要한일이므로 米에依하여 朝鮮米를보내가지고 이것을 內地雜穀과 交換하는것이다 이때문에 鮮米는 一層그 [illegible] 農民은 도로혀 利潤을 어들수잇다 鮮米不賣運動에 對한 反對는 잘못이다 最近 內地의 [illegible] 로 同感에 不堪하는바로 今後 朝鮮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잘될 줄로생각한다

[illegible] 伊太利의 [illegible] 발칸에서의 勢力 [illegible] 伊太利가 參加하기를 [illegible] 現在까지 [illegible] 이러한 [illegible] 나지못한듯하다

平壤旅團長 平野少將赴任

【釜山電話同盟】新任平壤旅團長 平野英光少將은 家族同伴 廿八日朝 釜山上陸 同八時三十分發 「大陸」으로赴任하엿다

在滿教務部設置
第一回審査委員會開催

【東京電話同盟】滿洲國內의 邦人의教育은 累年增加의一途를 걷고잇다 이로써在留邦人子弟 教育에 關하여는 從來 內閣과 外務省과가 共管으로 事務를處理하여왓는데 今日까지 每年一萬人 小學兒童이 增加하여 昭和十五年度에는 約百校의 小學校를 新設치안흐면 안될實情에잇다 그리고 中等學校도 相當數를 新設하게된事情等에 비추어 在留邦人 教育關係를 一元化하여 內閣에 諮問시킬것이라하여 今番 關東局에 在滿教務部設置에 關한 勅令案을 樞府에 諮詢을 奏請하엿다 따라서 樞府에서는 石井菊次郞氏를 中心으로 石塚、淸水、南、奈良、荒木、二上의七氏에 附託、二十九日午後一時半부터 樞府事務所에서 第一回審査委員會를 열고 審査를 開始하엿다

新政府成立當日
張總理聲明

【新京二十七日發同盟】國民政府의 還都改組에依한 支那新中央政府는 汪精衛氏를 首班으로 近近成立케되엿는데 支那에서新秩序建設運動이 힘차게 展開되고잇는 現狀을衷心으로 歡迎하는 滿洲國政府는 新政府成立當日의 三十日又는 三十一日中에 張國務總理談形式으로 重要聲明을 發表하여 新政府에對한 滿洲國의 立場을 闡明하기로 되엿다 聲明內容은 新政府의 成立을 衷心으로 慶祝하고 東亞新秩序建設의 先驅的役割을 하고잇는 滿洲國으로서는 新政府가 日滿支三國互助聯環의 新體制下에 東亞新秩序建設에 協力하려는 點을 衷心으로 歡迎하는 同時에 前途多難한 新政府의 一大飛躍에 對하여는 援助協力을不惜하는 旨를 强調할것으로보인다

中國學生來朝

【門司電話同盟】興亞院後援의 國立北京大學醫學院生第一回訪日見學團 學生一行九十名은 富田同學院教授引率下에 二十八日朝天津發門司港着의 東亞海運北嶺丸으로 來朝大阪、東京、奈良、京都等 主要都市를 見學하기로되엿다 同一行은 日滿連絡船으로 [illegible] 奉東日報主催의 關東州大學生徒代表滿洲原神宮參拜團一行도 來朝 同船으로 神戶로 向하엿다

滿洲國政府 農産物十個年計畫

【新京二十七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農産物十個年計畫을 確立하기로 決定하고 二十六日全滿省長會議第一日會議에서 星野長官으로부터 그要旨를 言明하엿다 그리고 그所要經費에 對하여는 産業部에서 審議를한 結果 總計一千萬圓에 達하는豫算을 作成하여 追加豫算으로今年度豫算에計上하기로 되엿다 農産物增産對策의 骨子는 食用農産物增産을 主體로하고 經費의 重點을 種子配給農業法改正、病虫害驅除、農民의改善、飼料增産等에 集中시키고잇는데 具體化에잇서서는 政府與中央地方、民間團、業者、特殊會社等文字그대로總動員의 體制下에行하게될것이다

石門方面에 歸順兵續出

【石門(石家莊)二十七日發同盟】中央政府成立을 目睫에두고 各地의敵軍은完全히 戰意를喪失하고 漸次日本軍과協同하여 共産第八路軍과 對峙하던 敵軍이 濃厚하게되엿는데 三月中의 石門을中心으로하는 歸順者는 一萬이란多數에 達하엿다시 一、二十日柳川部隊에對하여 張本全以下四十六名이 歸順要請을하여 卽日武裝을 解除하엿다 一、二十四日成家莊鄕西北方二十키로 附近에서 王富身以下百九十九名이 歸順하여와 同

西北黨軍에鐵槌
敵、解氷期를好期로蠢動

【○○에서二十七日發同盟】지난二日西北進攻作戰에서 我軍은所期目的을 達하고 軍을撤退하엿슴은 既報와가튼데 寧夏省境으로 潰走한 西北黨軍殘黨은 其後解氷期를 好機로 蠢動을開始하여 ○○部隊는 지난二十二日以來 다시西北地區로 進擊을 開始하여 山原、須賤、熊川、山內、黑石、平賀、小河各部隊는 敵을五加河、五原北側各文流及南方地區로 壓縮하여 二十五日夕刻 一部는이미 敵의退路를遮斷을 決行하여 이제西北黨軍은 目睫間에迫頭하엿다

英艦諸領侵犯

【오슬로二十七日發同盟】昨今北海方面의 海上活動이 漸漸활發하여옴에따라 英艦隊에依한 中立國領海侵犯이 問題되고잇는데 諾威海軍省은 二十七日 최근니케로써 最近의英海軍의 領海侵犯事件을 列擧하여 左와如히發表하엿다

三月二十一日 英驅逐艦一隻이 突然諾威西北海岸의 프스타도近海諾海內에 出現하고 翌二十二日 約四隻의 英驅逐艦이 西南岸 린데스네스半島와 이에間의 領海內에 侵入하엿음을 發見 其中二隻은 附近으로스 映港內로 들어가려는것을 獨貨物船이 目擊하엿다 또同日午後九時半頃 이에間附近의 海岸에同八、九隻의 英驅逐艦이 보엿는데 其中一隻은 附近海上에잇던一隻의 獨貨物船

芬蘭新內閣成立
國防政策에專念?

【스톡홀름二十七日發同盟】芬蘭의 리치內閣은 蘇芬戰爭의 責任을지고 二十七日 一應 總辭職하여 同日 다시리치氏를 首相으로 新內閣이 成立되엿는데 新리치內閣의 特徵은 各政黨에서 代表를派遣하여 擧國一致內閣을組織한點에잇다 但 그政策은 前內閣의政綱을 繼承할것으로보인다 今日까지의 芬蘭軍은 一兵의復員도 하지안코 國民의全勞働力을 動員하여 新國境에 備하는等 오로지 國防에專念하고잇는 狀態로 新內閣은 完全한 國防內閣으로 볼수잇다 新內閣閣僚의 主要人員은 如左하다

首相 리치(留任) 國防相 와르덴將軍(前參謀部附) 外相우즈칭(元外務次官) 藏相 레츠코타(新任) 國民生活統制相 판넬(前大使)

의 船首前方에 一發의 砲彈을 發射하고 여러번이나同船의 周圍를 돌아다니다가 그대로航行하엿다 그때我海軍은 水雷艇及 飛行機를 出動시켯스나 現場到着前에 이미英艦은 업서지고마럿다

人事·集會

▲吳鳳修氏(朝鮮火災海上主幹)朝鮮名家譜編纂會 [illegible] 關係大北京出張中本月廿八日朝 歸京
▲赤塚重民(前京城公立職業學校長) 廿八日 選任人事次來社
▲角永淸氏(總督府物價調整課長) 二十九日아까쓰끼로東京出張
▲鈴木正文氏(朝日新聞京城支局長)大阪本社論說委員으로 轉任四月二日아까쓰끼로離京豫定
▲松正中(朝鮮總督府學務局學務課長) 二十八日大田學務局出張所長就任人事次來社

八面鋒

入學難이 甚한 原因의 하나는 公立을 志願하는 이가 만코 私立을 志願하는 이가 적은 때문이라고。
◇
그러나 實際로 보면 京畿는 보다도 다른 私立中學이 만코、
◇
京畿高女보다 다른 私立高女가 만흔것을 어찌하나?
◇
內地서는 中學校는 넉넉하나 조흔 學校를 志願하는 이가 만하 入學難이 잇스나、
◇
朝鮮서는 이밥、조밥의 區別할것업시 入學할 學校가업서 入學難。
◇
多少 不充分하지만 私立中學校도 設立認可를 엇게 내주어스면!
◇
市內電車 四月一日부터 急行運轉을하면 交通難이 緩和되리라고。
◇
그러나 平壤때의 交通對策을 어찌할가 問題꺼리。
◇
稅制改革으로 二千三百萬圓의 增收를 보리라고。
◇
酒、麥酒、砂糖價가 어며울랏다、그밧게 物價도 오를것이 뻔하。
◇
適正價格과 九·一八價格停止令과는 差異가 생길 模樣。
◇
蘇聯 駐佛大使를 召還、佛蘇、英蘇의 斷交前提?

廣告

眞珠入生員 白金代用サンプラチナ指輪 現代新流行眞珠入指輪各種 注文時에는注文品額에對하여三分之一의先金을要함 京城府寶町二六 小間物金光商會 特許新發明品代理特約朝鮮總配給所

急告! 朝鮮農家 麻種分配機關

山東農園麻種部

朝報案內

家庭教師 京城南米倉町 [illegible]

讓店 食料雜貨店 [illegible] 京城府櫻井町二丁目玉屋

求東京中學生指導

アイスケーキ機

音樂研究生募集

簡易生命保險勸誘事務員募集

代理營業所長

洋服 交換賣買 京城府黃金町 洋服店

春服 富永洋服店

生徒募集

刻字見習工

圖案研究生 京城應用美術社

出張所長

海州、延安、原州、天安、水原、京城、太陽生命保險會社

受驗數學 京城研數學館

當選謝禮 本人等이 今番新市金融組合總代改選에 際하야 當選됨은 有權者諸位의게 謝禮함 新市金融組合總代 李亨根 崔亨模 孫炳彦 許成興

當選謝禮 本人等이 今番新市金融組合總代改選에 際하야 當選됨은 有權者諸位의게 謝禮함 新市金融組合總代 鄭善 元允 李京淑 朴孝龜 元昌登龍 [illegible]

朝鮮日報社出版部
朝光社로改稱
振替電話도新設
[illegible] 朝鮮日報出版部는今年一月廿二日 朝鮮日報社重役會에서 朝光社로 獨立經營하기로 되엇사온바 그동안 手續其他關係로 遲延하엿스나 今月十五日手續이完了되어 朝光社로그 新發足을 하게되엿나이다 [illegible] 從前대로 業務一切는 朝光社로 되엇사오니 倍前愛護해주시옵소서 月刊三大雜誌 朝光、女性、少年도 從前대로 發行하옵고 單行本도 刊行하오니 文局、書店、個人讀者、여러분이나 愛讀해주옵소서 그리하옵고 振替口座는 下記것을利用해주옵소서
昭和十五年三月 日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一
朝光社
振替口座 京城二三七一一番
直通電話 光②七六九〇番

藥用크림 ヤパンモア 여드름 주근깨 기미빼는 パパヤ洗粉 [illegible]

興亞實務學院 土木科 鑛山科 中等科 教員科

京城中等專修學院 第八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第五十三回生徒募集

京城中等學院 生徒募集

宣川中學講習所 生徒募集

東京聲樂專門學院 伊太利ベルカント唱法教授

協實商業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工科學院 生徒募集 官認 京城府新水町

朝鮮電氣工業學校 生徒募集 募集人員 入學資格

明日 府內三十五小學校入學考査
總收容力은 志願兒童의 八割三分五厘

부내삼십오공립소학교의 금년도입학시험 고사는 명삼십일 오전여덟시부터 일제히 막을열기로되엇는데 지원자는 일만이천, 백사십삼명 이어서 지원아동의 팔할삼분오리밧게는 수용할 처지에잇다 따라서 남는이천백삼십삼명은 부득이 고사결과 떠러지게되엇는데 지원가정에서는 저번에 경성부에서 보내여준 어느학교에 가서 고사를 바드라는 통지서와 어린이가 먹을 점심을가지고 오전여덟시까지 어린이를데리고 고사바들학교에 도착하도록 하여야한다 고사결과 입학되고 안된것은 추후로 학교에서 통지한다

朝鮮佛敎『大廓淸案』
財産管理에 對한 監督取締 一層强化
人材養成主義로 中央佛專을 大改革
當局寺刹令施行規則改正

이천년에갓가운 유구한 력사를가진 조선의불교를 확청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는 조선사찰령(寺刹令)시행규측을 전면적으로 대개정하기로되엇다

현재조선의 승려를 포옹하고잇는 삼십일본산(本山)의 주지기타 간부들ㄷ 각기당파가잇서가지고 서로반목질시하는 상태로서 심한경우에는 자행타화(自行他化)란 불교의 근본정신을 몰각하고 서로 재판질까지한다 따라서 불집적정신적으로 발생하는 악페는 일일이 매거하기 어려운바가잇스므로 이것을일소하기위하여 사찰령시행규측을전 하여 본령의운용을 강화하는동시에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專)의내용을 확충강화하여 불교인재양성에 일층주력을하기로되엇다 그리하여 사찰령시행규측은 이미심의실(審議室)에 몰려서 방금심의를급히하는중으로서 오는사월중에는 공포실시하게될터이다 이번그개정되는내용인즉 각본산의주지임면을좀더 엄밀히하며 재산관리에대한 감독과취체를일층엄중히하여 사유(寺有)재산에 불미한사건이 발생하지안토록하고 종교적입장에서 정신적융합을 도모하여 신성한불교의근본정신을 발휘하도록하라는것이다 이와가치함에는 무엇보다도 지실한인재가 필요하므로 현재중앙불교전문학교를 설비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혁신을 단행하여 이방면에 유의한인재를양성하여 조선불교의 확청공작에 협약하도록 하라는것이다

하여간 오래동안 여러가지악폐가 산재하엿든조선불교의장래를위하여 실로다대한기대를갓게되는것이다

卅一本山 住持會議
今日부터 二日間開催

전조선불교 삼십일본산에서는 이십팔일 오후한시반부터 부내수송정 총본산법당에서 소화십오년도의 주지(住持)회의를 열엇다 회의는 이십구일까지 이틀동안 게속할터인데 그중요한 의안은 소화십오년도의 예산결정과 총본산의기본재산을 확립할것과 총본산안에 절집을더확장하여 지을것등 여러가지문제이다 이날출석한 사람은 다음과갓다

▲奉恩寺姜性仁▲龍珠寺姜大蓮(缺席)▲奉先寺申九泳(缺席)▲傳燈寺金正燮▲法住寺 張石霜▲(缺席)▲麻谷寺安香德▲威鳳寺柳在煥▲寶石寺 黃碧應▲大興寺 朴映熙▲白羊寺 宋宗憲▲(缺席) ▲松廣寺 林錫珍▲仙岩寺朴湶芸▲華岩寺 蘇東善▲桐華寺尹相範▲銀海寺 朴度洙▲孤雲寺金永鎬▲金龍寺李炳浩▲祇林寺金擎林▲海印寺卞雪堤▲梵魚寺宋斗翰▲貝葉寺李明教▲成佛寺李寶瀾▲永明寺鄭昌允▲法興寺鄭昌允▲寶賢寺金法莆▲乾鳳寺金鎭嶂▲榆岾寺金雲應▲月精寺李鍾郁▲釋王寺鄭昞憲(缺席)▲歸州寺朴寶範

(사진은 총본산주지회의광경)

京春뻐쓰에또事故
乘客等十一名重輕傷
加平郡下에서故障으로墜落

경춘(京春)철도자동차가 또사고를내서 남녀열한명의 중경상자를 내엇다 이십칠일 오전열한시반쯤 경춘철도여객자동차부 운전수송기영(宋基永)(二七)는 승합자동차(江一〇二二號)를 운전하여가지고 춘천(春川)을떠나 경성으로 오든도중 오후두시경 경기도가평군 외면대성리(加平郡外面大成里) 육십칠번지압 도로에서『핸들』에 고장이생겨 노피십사미돌가량되는 낭떠러지에 떠러젓다 승객열두명중 아홉명과 차장, 운전수등 열한명의 중경상자를 내엇는데 부상자는 곳영락정(永樂町) 식촌병원(植村病院)부민병원에 수용치료를 하는중이다 그런데 중상자와 경상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重傷者 申相俊(三三) 朴斗丹(三五) 崔在得(三五) 申發鉉(二〇)▲輕傷者 辛斗漢(三七) 金萬春(三七) 金順福(二五) 申春秀(二七) 李鐘浩(三二) 車掌 朴福植(一七) 運轉手 宋基永(二七)

貯蓄報國의赤誠
三億圓目標額을突破

저축보국의적성은 드디어 삼억원의"꿀"을 돌파하고야마릿다 총독부이재과(理財課)에서조사한바에의하면 십사년도 저축액은 이월이십팔일현재로 삼억이백십륙만원에달하여 목표액을 훨신지나는 조흔성적을 나타내엿다 작년이월이십팔일현재 삽십년도저축액이 이억원천사백이십팔만륙천원이엇든데비하면 약팔천구백만원이 격증되엇는데"저인푸레"가 찰루하야진대신 저축열이고조된 결과로보힌다 조선인구이천사백만명으로 쪼개보면어른, 아해할것업시 한사람이 십이원륙십전식 저금한폭이다

(單位千圓)

郵便貯金	二四、八〇一
簡易保險積立金	一四、二一〇
銀行預金	一四一、二三八
金融組合預金	一〇、八二一
東拓預金	七、三三六
無盡預金	八、三二九
保險準備金	二二、六四五
國債府債券消化高	二三、二七二
合計	二〇二、一六〇

金日成匪出現
朝鮮側警備、江岸一帶嚴戒中

간도성안도현(安圖縣)의 대마록구(大馬鹿溝)를 습격한 김일성(金日成)일파의 비적을 토벌하기위하여 출동한 만주국군토벌대는 지난이십오일오후 네시반 대마록구서남지구 삼십리의 함수지점 고지에 이르자 돌연 산와지대에 잠복해잇든 비적약 이백명이 게릴라전술로써 역습해와서 토벌대는 적은군인으로 이에 응전하여 격퇴하엿다 비적는 퇴로에 남으로 도망하여 선만국경누근으로 몰려오는 형세인데 함경북도삼장서(三長署)와 함남혜산진서갈파(新乫坡)의각경찰서에서는 판내강연일대를 엄중경계중이다

航空寫眞講習會

조선지부에서는 만주항공주회 …

寄特한 松山氏

부내욱정(旭町)오정목 송산평사랑(松山) …

土幕民의 健康은?
城大醫學部學生이"衛生調査會"組織街頭進出

토막민의 건강상태는 과연어떠가 기생충가진이는 얼마나되며 결핵은어떠하며 매독는 어떤가 이런여러가지점에 대해서 상세히조사하여 토막민구제사업에 한개기틀이되게하고저 경성제대의학부 사회법에재학중인 뜻잇는학생들이모혀서『특수세민위생조사회』라는조사단체를 조직하고 면학의여가를 이용하여 부사회과위생과의응원을 바더우선 오천명을 한도로 실지조사하여 진숙하기로되엿다

조사는 이들세궁민의 건강과 위생상태 특히기생충 매독 결핵조사에추점을 둘터이라는데도시외의부지식으로 버림을·바더오던이들특수세민의 위생상태에대한 과학적인조사로서는처음되는일로서 이번학생부대의 조사는 토막민 부락의 위생상태개선을 위하여 중대한자료를 제공하게될것으로 기대가크다

"興亞"二十本 新發賣計畫!

전매국에서는 흥아한갑에 스무개너흔것을 새로만들어 십사전에팔고자 준비중이라는데 이것은 당배만도는데 쓰는종이인 돼지잉크를 절약하기위한때문이라한다 그리고 새보나흥아는 새고안을해서 명냥하게 인쇄하고대중의환심을 사리라한다

今曉、永登浦署 一齊檢索

【永登浦支局電話】봄이되어 입기가 따뜻해지므로 사방으로부터 부랑자 노동자들이 수업시몰려들어 도난사건이 빈발하기때문에 영등포서에서는 오늘아침네시에 전서원이 총동원하여 관내를 일세히검삭하엿는데 검속된사람는 모두 일백이십여명으로 방금경찰부로 지문조회를 하고잇는중이다

暴利取한米穀 仲介商摘發

여주군여주면하리(驪州郡驪州面下里)미곡중매상 최만성(崔萬成)(四〇)는 지난달십오일부터 이달이십일까지에 하리시장에서 칠분도미 예순너섬을 매섬사십원륙십전씩수고사다가 광주군(廣州郡)김봉서(金鳳瑞)광산사무소에 매섬에 오십원내지 오십이원씩밧고 팔아사백여원의 부정이득을 한것이 이십칠일오후로 경찰서경제계에 적발되어 방금엄중취조를밧고잇다

本町署管內 野犬撲殺

갈길이잇는게라도 주인의주소성명을기어한패를 부치지안흔개는 야견으로인정하고 박살한다 이십칠일오후 부내주교정(舟橋町)세번지 하원병작(河原兵作)외개는 주인의말【스이 (之)】동네경의 근처사람을물고 이십일일아침에 죽엇는데 본정서에서 죽은개를 조사한결과 미친개로 판명되엇다 이가차 최근미친개가 횡행함에 비추어 부내각서에서는 근간 야견박살을하는데 개를기르는 사람는 잘못도러매는지또는 정규감찰외에 주인의주소성명을 …

漣川郡下에서는 面長全部가創氏

지난이십삼일 경기도연천군(漣川郡)에서는 창씨제도에관한 임시면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가치 결의를하엿다고 남궁녹도지사(甘藤知事)에게 보고하엿다 (南宮綠)에게 보고하엿다 남궁녹각하는 조선교육령개정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엿는데 이번다시 씨제도를 실시하여 반도인의 갈바를명시하바로서 우중의 기피감격하는바이다 도리 연천일동은 충성선지하여 면민이 모두 이운동에 노력하기를 결의함

故 金玉均氏
東京서四十六忌追悼會

【東京電話同盟】조선의 선각자고김옥균(金玉均)씨가명치이십칠년삼월이십팔일상해객사에서 자객홍종우(洪鍾宇)의총탄을 마저쓰러진지가금이십팔일로서 만사십육년이되엇다 두산만(頭山滿)금정오개(今井五介)수야연태랑(水野鍊太郎)등제씨로써 조직된고균회(古筠會)에서는 동일오후 세시부터일본공업구락부에서 김옥균 선생의기념회를 열고고인의 영을추도하엿는데 동아선각자의찬양자의한사람으로 김옥균기념회의상무위원인 동아전식상무고문 향정상아이(向井上摠一)씨는 김옥균씨를 다음과 가치말하엿다

김옥균은 명치십사년경으로 오기는 명치십칠년의 망명하여온 이래약십년동안두산만옹파 복택유길(福澤諭吉)옹의 가르침을 바더 유지들의보호를바더 일본에잇섯는데 이잇섯기때문에 소립원(小笠原)북해도(北海道)등 여러곳으로귀양다니며 또는 자객이따라단엇기때문에 활동이여간제한을밧지안엇다 그래서 두산만옹의 게책으로 자객파조선정부를 위하여 방심케하기 위하여 입식(李逸稙)홍종우가 일본으로 건너와 반나여 ... 칭도상 원한을 갖고 … 치 친해지기까지하엿다 동지들는 이와홍두사람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충고하엿스나 호랑이굴에를 들어가지안흐면 호랑이색기를 잡지못한다고 여전히 호랑하엿다 그때마침 청국정부가 군이만약상해에올어오면 이홍장(李鴻章)에게 소개해서 군의뜻을 …

大輪洞郵便所 電話交換開始

평안남도강서군 동창면 대안동(江西郡東昌面大輪洞)우편소에서는 이십팔일부터 새로히전화교환사무를 개시하엿다 동국의가입자는 모두삼십호명이다

洋食 廣橋그릴 廣橋川邊 電話光三一九〇

그는 그처럼 도시체의 사지를 모두끊라서 나누어걸고 그중에다가대역부도옥균(大逆無道玉均)이라고대서하엿다 이로한 사건에우리일본의 국론는 비등하엿든데 곳청전쟁이나고 또그뒤를이어 일한병하게되어 김옥균의 초지는 이루어젓다 (사진은 고김옥균씨)

各學校合格者
輔仁商業專修

禹濟孫 崔觀明 鄭淳煥 崔光鏞 盧觀鏞 宋漢祚 方完基 崔竹和 金學鎭 朴鎭運 韓秉寬 李炳熙 鄭智淳 洪淳泰 蔡在淳 朴圭錫 沈泰鉉 金容珏 金顯祥 李鍾武 朴圭亨 林炳默 李鐘珪 李康佾 朴英鎬 金先九 金昌基 李明宰 宋炳俊 林永智 金永鳳 張在睿 東潤演 金天翼 嚴準永 朱明烈 高炳燦 金鍾均 朴容仁 李海福 韓完燮 朴鼎錫 金宇泳 朴永浩 金明淑 宋洙植 崔天一 鄭烈謨 愈鍾麟 愈英植 辛榮默 吳一丁

碧窓

자동차가업다. 업다해도 재밤중에 한강을건너다니는 자동차도 잇스니 요리집에서는 자동차회사와 은밀히 약속을해가지고자 팔할까지가 요리집에서 몰고보니 요리집에서는 웬일인가◆돗아나오는것이 아니라 요리집에서 몰려누운는데 요리가는 가는것뿐이아니고 빈차로 올때 ×것까지 차의 부처준다던가◆필요한것이 지 돈을더준대도 할수업다고 할면 모르나 세상이 그러지못하 기로 약속된이상 이여시 위법이요 아더이든 필활것업다◆하여간 요즘을대로반는일은 잇건검 사실에잇서서 요리점에입하는자동차가 그처럼 만라는것은 어김업는사실이니 정당한 요금을내고 할손님이 그만큼 기회가 적은것만은 사실아닌가◆사람이 그처럼 요리점출입하는 사람밧게 업다면 피 한방울파만일 밤에 자동차를 이용하는대신한다는 까닭는 방공의수정군들을위해 제공하는것박게안될것이다 ◆더구나 요리집운전이나 연국장운전에 자가용사동차가 보이는것는 더욱갈입이아니가

來征할專大拳鬪軍 戰陣자못堂堂
웰터-級의第一人者文君登場

全朝鮮拳鬪聯盟의 熱狂的待望裡에朝鮮拳鬪俱樂部主催 專大對朝鮮의 大拳鬪對抗戰은 압프로六日後(四月五日)에 切迫하엿는데 專大軍一行은 後藤部長引率下에 豫定과가치 二十七日午後十一時 東京驛을 出發하여 明二十九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에 아까쯔기"로 入城하게되엇다 그

◆專大選手의戰歷은 拳鬪界에 周知하는바이나 大略紹介하면 다음과갓다

◆메다級 金正煥

文君은 第二次의對戰이될것이오李麟基君으로는 復讐戰이라하겟다

◆메다-級 金英煥

金君은 其間大阪에서 今村正洞이라는 內地名을가지고 關西아마추어-拳鬪選手權保持者이엇는데昨年四月부터 專大에入學하여各大學選手中의最重量級第一人者이다 金君의獨特한 技術는『원쯔-』로부터 連發하는 適確한『훅크』라하는데 將來가 屬望되는 年少한典型的『파이터-』이다

◆웰터-級 金應淳

新進의도보다 戰出하여 方今은 堂堂한東部大學拳鬪界의『嶼』『스트-』의 한사람 으로『인파이트-』를 得意로하고『원쓰-』는 間斷업시 잘쓰며 時間도 大端히强한『압파컷트』를 適用한다고한다

◆라이트-級 鄭鳳鉉

此에云云치안해도 周知하는바와가치 鄭君는 多年間 全日本메다-級의 覇者로 昨年東京에서 米國代表選手와 對戰하야이기여 名聲을 올린것이니 米國代表選手를 打倒하엿…

日本學生拳鬪拳者 鄭選手權保持者로昨年日比、日米兩對抗戰에는日本代表로 出戰한結果 모다判定勝을하엿고 今番專大專門部選手로 다시금 登陽하게되엿다고한다 今番은 來征軍의主將이라는重責任을가지고 朝鮮側의主將인 金明錫君과 對陣하게되엇다 그런데 金明錫君과는 四年前에明治神宮拳鬪大會에서 舉行하엿든比島派遣選手決定戰에 東京과朝鮮을各各代表하여 對戰한結果 金明錫君의 判定勝이엇스니 今番

延專自轉部役員

延禧專門學校自轉部에서는 昭和十五年度의役員을 다음과가치 決定하엿다고한다

▲部長 朴孝敬▲代表委員 張知煥 宋淳日 ▲主將 宋淳日 ▲마네저- 朴英永

淸津拳鬪俱樂部

組織된 淸津拳鬪俱樂部에서는東京으로부터 一流選手를 招聘하여 來四月四日午後七時부터 公會堂에서 創立紀念게임을 擧行케되엇다고한다

橿原武道大會

紀元二千六百年奉祝橿原神宮奉納武道大會는 來四月六日午前九時부터 同神宮外苑野外特設武道場에서 盛大하게擧行케되엇는데 第一次게임은 全國各地로부터 選拔된 强豪二十二敎士가 八組로分하여 各各二本勝負의 總當戰을 行하여 各組의代表를 決定한後 다시금 第二次게임을行하게된바 第一次게임의對陣은 다음과가치 決定되엇다

▲第一組 小澤範士(東外) 田中重子範士(佐賀) 江藤小郎敎士(福島)▲第二組 柳田東一敎士(群馬) 小川奎敎士(長崎)▲第三組 杉山和民敎士(香川)▲第四組 持田盛二範士(東京) 增田眞助敎士(和歌山) 高野茂義敎士(東京) 大島治喜太敎士(大阪) 東山健之助敎士▲第四組 中野宗助敎士(東京)▲第五組 佐藤忠三敎士(京都) 宮崎茂三郎敎士(兵庫) 富山(東京)▲第六組 森正純敎士(香川) 千葉仁之助敎士(岡山) 齋村五郎敎士(東京) 加藤七左衛門敎士(愛知)▲第七組 森正純敎士(岩手) 淸野武治敎士(香川) 津崎兼敬敎士(京都) 小野十生敎士(東京)▲第八組 奧園敎士(京都) 大麻勇次敎士(長崎) 佐藤源敎士(茨城)

六大學春季野球 四月九日開幕

【東京電話同盟】東京大學野球聯盟春季리-그戰는慶應對帝大、早大對立敎의 두게임에依하여 開幕되고 五月二十六日의 早慶戰으로써 終幕케되엇는데 各게임日程는다음과가치 決定發表되엇다 그리고 慶明戰이 行케될五月十八、十九兩日이 慶應의運動會가잇게되어 多少의變更이잇을지도모른다고한다

◇四月九日(火曜)▲慶應對帝大▲早大對立敎(第一回戰零時半)
◇四月十日(水曜)▲立敎對早大▲帝大對慶應(第一回戰零時半)
◇四月十三日(土曜)▲法政對明治▲立敎對慶應(第一回戰一時)
◇四月十四日(日曜)▲慶應對立敎▲明治對法政(第二回戰零時半)
◇四月二十日(土曜)▲早大對帝大▲立敎對明治(第一回戰一時)
◇四月二十一日(日曜)▲明治對立敎▲帝大對早大(第二回戰零時半)
◇四月二十七日(土曜)▲明治對帝大▲早大對法政(第一回戰一時)
◇四月二十八日(日曜)▲帝大對明治▲法政對早大(第二回戰零時半)
◇五月四日(土曜日)▲慶應對法政▲立敎對帝大(一回戰一時)
◇五月五日(日曜)▲帝大對立敎▲法政對慶應(二回戰零時半)
◇五月十一日(土曜)▲早大對明治▲帝大對法政(一回戰一時)
◇五月十二日(日曜)▲法政對帝大▲明治對早大(二回戰零時半)
◇五月十八日(土曜)▲立敎對法政(一回戰一時)
◇五月十九日(日曜)▲法政對立敎▲明治對慶應(二回戰零時半)
◇五月二十五日(土曜)▲慶應對早大(一時半)
◇五月二十六日(日曜)▲早大對慶應(一時半)

木村一回戰에樂勝

【마니라廿七日發同盟】比律賓國際庭球選手權大會는 廿七日華麗하게 開幕되엇는데 木村選手(早大)는 比律賓의 쭈바選手를 簡單히一蹴한바成績는다음과갓다

▲男子單式一回戰

木村(日本)7—5 6—2 6—0 쭈방(比島)
小寺(日本)6—1 6—2 6—3 데이로트(比島)

그래서 木村、小寺兩選手는第二回戰에進出케되엇다

廣告

라디오

第二放送▲午後六時(下)낸소콘파가타▲六時三十分 佛經解說▲七時三〇分 講演▲八時三〇分 古今名物▲九時 明治大正文壇名作이야기

東亞 東 織物
雜貨部新設
東亞織物販賣株式會社
社長 趙俊鎬
支配人 趙重治
京城府瑞麟町一番地
電話光化門③613·2360·2366番
振替口座京城五六番

今般弊社에서業務를擴張하야 雜貨部를新設하옵고 雜貨都賣業을兼營하오니 格別愛顧하사多數利用하야주심을懇望하나이다 雜貨部白

恒常格別愛顧하야주시오니 感佩不已오며 諸織物在庫가豊富하옵고春夏物最新流行紋儀가充分히 具色되여잇사오니 倍舊愛顧하야多數下命하야주심을千萬仰念하나이다 織物部白

學生募集 滿洲自動車專門學院
滿洲國公認 每月一日新學期開始 …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 …

亞米利加大陸의主人公인 紅人種의種族滅亡原因?

黃金國亞米利加大陸
一般으로 生覺하기는 亞米利加大陸하면 먼저 드러오는것印象은 錦繡物質가第一豊富하야 黃金國이라고하며 그곳에住居하야잇는 白人들은 모다富裕하고 幸福스러운生活을하고잇다고 누구나 다알것이다 그러나事實으로 부터約四百年前亞米利加를發見하기前에는 원래 비치싸한紅人種(아메리칸인디안族)들만살고잇섯다.

××

弱肉强食과生存競爭
世上에어느人種이勿論하고 大部分은其子孫이繁殖하고 人口가漸次로增加하야지므로 먹을것갈곳을엇기爲하야 피를흘니며 弱肉强食으로生存競爭을하는데 이紅人種만는 反對로種族繁殖을못하고 漸次減少되여 至今에는 滅族이되다시피되여남어잇는 極少數의紅人種은人種硏究의 資料를爲하여 特別히保護를밧는다고한다.
그러면紅人種은 웨다른人種과가티

繁殖하지못하고滅族이되여가는가?
一般에依하면 白人이 亞米利加를占領하고開拓當時서로 炊事를하야白人의銳利한武器에 만히마저죽엇다고하며 남어지는白人들에게쫏기여 山間僻地로드러가서 交通이不便하고, 먹을것조차 充分치못하여生活安定이못되고, 또는 저들는原始的生活을함으로 衛生에對한 觀念조차업섯음으로 惡疾(梅毒)病가만흔데 病沒者가만흔 關係로 紅人種은自然繁殖하지못하엿스며 또한가지重大原因이醫學史上에뚜렷이남어잇는 수수꺼기가로잇다。

××

紅人種滅族의因과 歐羅巴林疾紀元
一四九二年 即今으로부터 約五百年前에世紀의 航海探險家閣倫布一行이 新大陸發見하여 無爲한偉勳을세웟다. 그러나그裏面에는 同伴部下들이 新大陸에서 前에업든惡疾을傳染하여가지고 千辛萬苦를겪근後에 亞米利加新大陸을 發見하여 ... 千二百餘名을引率하여가지고 ... 가지고오자 말이만엿다. 이것이 卽歐洲에 林疾이生기紀元이라고하는 다그리고 紅人種의種族滅亡한 一重大原因이다。그들이 이러한무서운性病이잇스면서도無知함으로 무슨病인지도 모르고 治療할수도업섯음으로 自然病는 蔓延되여 長久한歲月을두고 種族까지 悲慘하게滅亡하게되엿다。

××

トマーク博士와 ノーベル賞
快哉다!トマーク博士의偉功이여!
(淋林特効サツタリム主成分發見者로서 一九三八年度ノーベル賞獲得者)人類의敵인淋族을滅亡케하는淋疾을消滅하는特效成分スルフォンアミド(サツタリム主成分)을發見하신偉功은우리人類에게百世에不忘의恩人이안일수업다.

サツタリム本舖 京城府明治町 新興製藥所
總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急性用五圓 慢性用十二圓

學藝

新"小說"의"擡頭" (六)

林和

續新文學史

이 簇子가「銀世界」의 主人公으로 崔秉陶라고 불리지는人物과 金玉均과의 關係를 이야기하는 資料다.

그人物이 小說에 씌워지는 崔氏엿는지 아닌지는 알수업스나 江陵사람으로 金玉均門下에 出入하다가 이 簇子를 어더가지고 甲申年政變이 나기前 江陵으로나려간 人物이 實際로잇섯다.

簇子의 글은「朝鮮得路傾其主」이라 하여 賣君태 事業의 前途가 洋洋하게 보일지라도 항상 操心함을 게을리 말라는것이다 무슨 動機로 金玉均이 이런 글을 江陵사람 某에게 써 주엇는지 모르겟스나, 생각컨대는 金氏가 平素에 簇子가 能함으로 글씨를 配한것인데 어느 程度까지 同情할수잇는 人物이기에 그 往 글씨를 써줄 바에는 改革運動에 前途를 警戒하는 意味의 文을써주게아니햇는가 한다.

그런데 이 글씨가 써온 簇子前에 다시 나타낫을때는 金玉均의 署名과 落款까지를 墨으로 지여 아라 볼수업고 물건는 족眞도 아니하고 족겁다지에나 부첫든것을 그냥 떼가지고 왓것다 한다. 傳하는사람의 말을드르면 江陵사람의 某가 金玉均의 手跡을 어더다가 所謂히 붓쳐 두엇는데 甲申政變이 三日天下로 끗난뒤 金玉均이 逆賊으로몰리자 그 禍가 미칠가 두려워 念急히 떼여버릴수도업고 입븐 墨으로 그 이름과 落款을 지워 버렷든것이라한다. 그야간 朴泳孝氏도 이 글씨를 分明히金玉均의 親筆이라하여 署名과 落款이 앗던 자리에 古筠手跡이라 證明한것을 보아 疑心할수 업는것이다.

勿論 이 以外에 現在金玉均門人으로 그 글씨를 아러가든 江陵人某에 對하여잇길이 업스나 이事實을 그대로 承認한다 할것가트면 가든江陵人인 李人稙이「銀世界」를 쓸제 그 人物을「모델」로 엇슴이 또한 分明하다 할 만 된 崔秉陶라는 主人公의 來歷과 事蹟이 그대로 그人物의 傳記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單純히「모델」의인 興味뿐만아니라 開化黨에對한 李人稙의 見解를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資料일뿐아니라「銀世界」를 製作한 用意가 남다른 時代의 批判과 새時代의 期待라는 底流한 點에 더욱이 그것을 朝鮮近代史上 산 歷史的事實우에 求하엿다는것을 이야기하는 貴한資料가 될수도잇다.

그러한 崔秉陶가 죽은뒤다음「제네一金」으로 惡傷한것이 崔秉陶의딸「玉順」과 遺腹子로 誕生한 아들「玉男」이다.

崔秉陶의 死後 그夫人도옷失神하여버리어 산송장이되고 玉順玉男 金靑年은 다시 들아와 崔氏집을 自己일가치를 보아 주어가는 사이에 於焉 玉順男妹가 工夫할 나이에이르러 金靑年은 그들 男妹를 데리고 米國으로 留學을 갓다. 이 米國留學이「血의淚」에도 나오는것으로 當時人의 希望의 一端을 反映한 部分일것이다.

그러데 어小說에서 다시注目될것은 崔秉陶의 妻로 玉順男妹와「金정스」가 五年米國에 留在해잇는 동안 江陵에서 생긴 일이다.

三人이 떠날때에 十餘年동안 農事가지고 가든 토이넓外로 만히넘어 五年잇는동안에 다쓰이고 一夜를 불러와 집 지경으로「金정스」는다시 朝鮮으로 돌아와서 물러 일이다「金정스」가江陵서 떠나올때 그아들에게 崔氏집 秋收는 年年히 作錢하여 느리도록 한것인데 崔氏집 財産이 말아되게 축이나고 또한 가지는 實實하던그아들의「난봉」파「거죽말」이 느는것이다

目이된다。宋致이란 題目이 發見수업다。그러나 藝術의 時期가 올때마다 그것을 認識하고 合理的으로 그時期에 스스로 適應하게하는것이 아마 한사람으로서 한國民으로서 可能한 宗派에의 最良의 길일것이다。어떤價値이나 要素이 이努力을 억가서는아니된다。또한 藝術에잇서 억거지는것도아니다。모든藝術을 ……한

「人類의思想」

은 必然的으로 모든藝術을 發展하고 다만 永遠하고 絶對的인것에 安息되고야마는것이다」

젊은學生에게부치는글 ④

現代學生氣質 (下)

내敎室의學生들에게

延專敎授 李敭河

그대들의 또하나의 特質을들면 나는 이번은 서슴지아니하고 그대들의 敎養에對한

「沒理解와」

無關心을 들겟다。그리고 이것은 아무리하여도 그대들의 顯著한缺點의 하나로 指摘할수밧게 업겟다。高等敎育을 밧는그대들에게 敎養에對한 理解가업고 關心이업다면 그대들는 或 異常하게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 말하는 敎養은 敎育을 말하는것은 아니다。敎育과 敎養은 一致되는 境遇도잇스나 둘이 決코 가튼것은아니다。敎育은 우리가 普通 말하는바와가치 만히주고 바들수잇는 性質의것이나 敎養은 주어지는것이아니요 不斷한 精進과 自己敎育을 거쳐 스스로 體得되는것이다。따라 世上에는 敎育은 바덧스나 敎養없는사람이라고는 할수업는사람이잇는反面 文學士나 哲學博士의學位는 갓지못하엿스나 高尙한 敎養을 가진사람이 도물지아니하다。敎養잇는사람이란 만흔智識의堆積을 가진사람을 말하는것이아니요 만흔智識을 消化하므로써

「叡智와良識」

을 엇고 너그러운 觀察과 乖曲되지아니한 判斷力을가저 處世에잇서서도 몸을 그르치지아니할 良識을 具備한 사람을 말하기때문이다。

따라 敎養은 學校의「노一트」를 외우고 敎本에通曉함으로써만은 到底히 獲得할수업고 만흔經驗과 觀察과思索을 거쳐서야 비로소 어들수잇는것이다。그런데내가 보는 그대들의 思索과 觀察이 어떤것인가는 잡아지못하나 그대들의 經驗의 範圍가 너무도 狹隘하고 讀書力이 몹시 貧弱한것만은 敎室에서 每日가치 實地로 經驗하는바이다。여기는勿論 여러가지 理由가 생각되지아니하는것은아니나 主로는 亦是 그대들의 敎養에對한

「意慾과情熱」

이 缺乏하기때문이라고할수밧게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편으로 敎養이란 閑暇한사람의 閑雅한 趣味로 그런 消極的인 意味로는 到底히 이즐과가튼 힘과 行動의 世界에 설수업다고 생각하고「헉슬리」의『멋진新世界』에 나오는「바一나드·맑스」나「헨리·포一스타」가튼『알파·플러스級』의 사람들처럼 미리豫定된 任務豫定된대로 遂行하므로써 知識人의 任務를 다하엿다고 생각하려고하는 一部의 聰明한 學生들도 想像할수잇다。그러나 나는 여기잇서서도 知識人이 最後에 依據할것은 亦是 敎養에잇다는것을 强調하고십다。왜그러나하면 힘과 行動이참으로 價値잇는것을 나려면 반드시 모든것을 바로보고 치우치엄시 보는 叡智와良識이 先行해야하기때문이다。그러나 여기잇서서는 내自身의말을 더繼續하느니보다 聰明한批評家「아一놀드」의 말을 비는것이 그대들에게 對한 나의信用을 도합게하는 所以도되고하여 조용한것갓다。

「誠實히 우리들은 그感動에接近하고잇다。그리고 어떤國民에잇서서든지 가장 緊要한것은어떠것을 取하면 이變動에 가장 잘適應할수잇슬까하는것을 알기爲하여

「自國의狀態」

를 明瞭하게 認識하는것이다。마음의 寬闊과 柔軟이 이러한 時代에잇서서는 第一所重한 德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養鷄

押 齊韻部 (古詩圍意)

期限 四月十五日

當選漢詩

滄東考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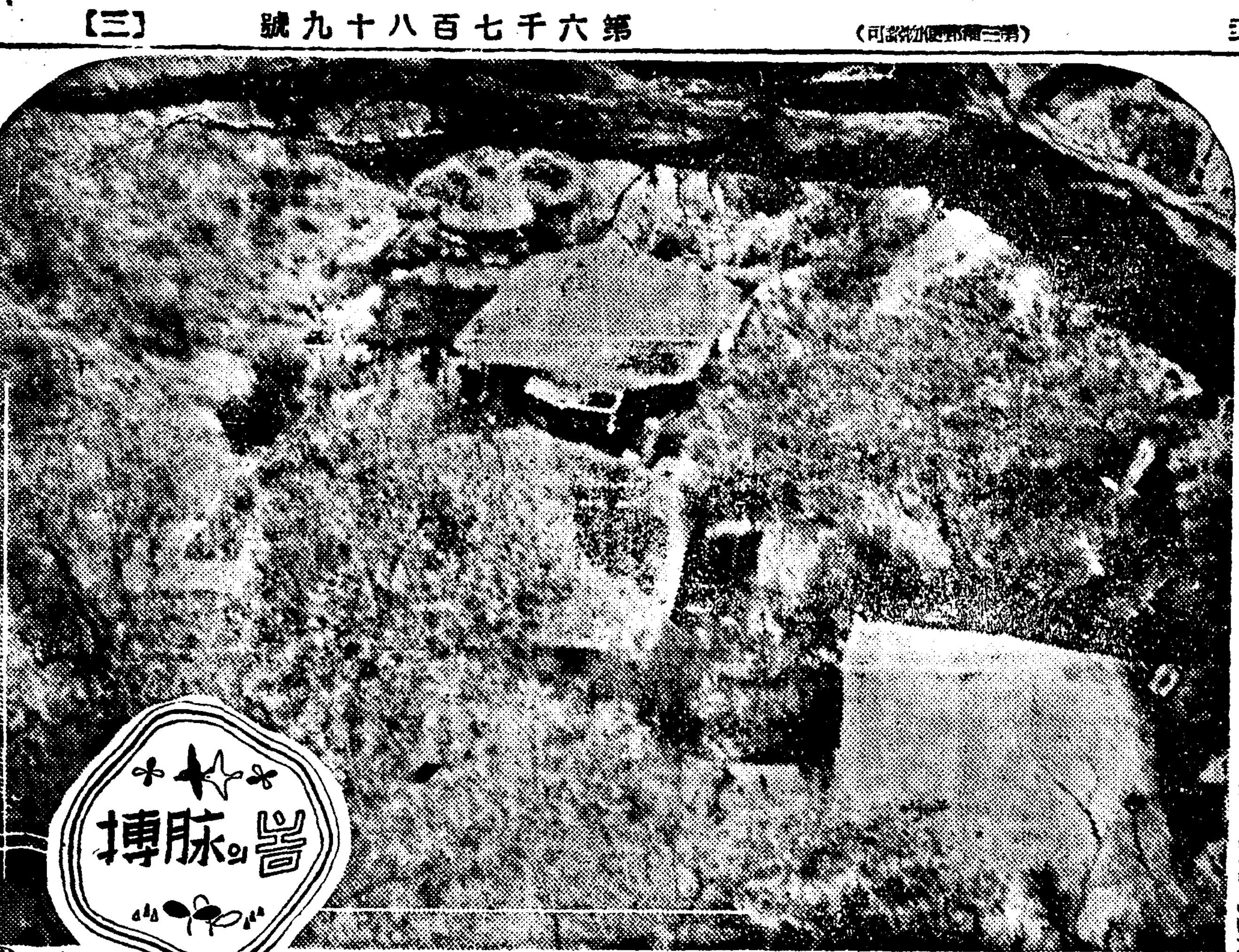
春寒

三等之一

全南求禮郡山洞面大鈴里 文獻奎

江城春早尙殘寒
病骨自憐蘇未完
偏向朝陰凝細細
更從夜雨動漫漫
將舒柳眼還嚬歷
欲差禽音轉澁難
和煦良辰知在邇
與君留約賞花團

評曰 全篇可推老手頸聯尤見巧鑄



⑥

"이니쓰푸리"로

(愛蘭) W·B·예一츠

일어나 가야겟다 "이니쓰푸리一"로 가야겟다。거기다 흙파 나무가지로 오막사리를 꾸미겟다。콩밧며이랑파 꿀벌통을 하나노코 벌소리요란한 구역에 혼자살겟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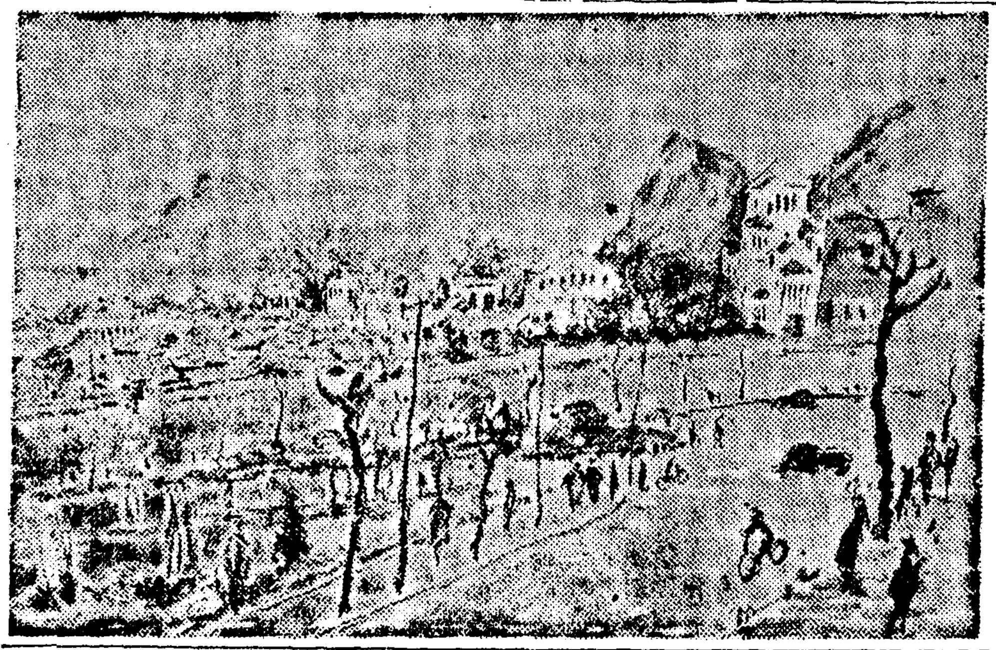
(三節略)

일어나가련다 밤나즈로 湖水가나즈막한 소리로 물까에서 출렁대는것을 들으련다 한길이나 또는 어두운舗道에 머물러서 나는 가슴속기프데서 이 물소리를듯는다。

學藝안테나

◇朴性圭氏個人展 三日부터丁子屋서

東京文化學院美術科出身 朴性圭氏는 오는四月三日부터 七日까지 五日間 市內丁子屋五層社交室에서 小品展을 열게되엿는데 出品作約三十點는京城을 中心으로한 油畫、水彩『파스텔』等의 風景畫이며特히氏는 纖細한筆致와 多感한色彩에 特色잇는 畫風을보이고잇다한다。(寫眞은朴氏의作)



朝鮮作家의成果

第10回獨立展을보고 (完)

在東京 金晩炯

高橋誠一郞氏「農夫」「靜物」을 氏는 團體의 구석구석 까지를 凝集하며、너무나 活氣기며、制作을한다。中原彩氏의「眺望」아름다운「마티엘」。

最高「레벨」로 미를수잇는 須田國太郞氏의「海邊」「黃化驛」「卓上靜物」等三點。氏에잇서서는 此外 아무「제스츄어」도 必要치안다。完全히自己를 表現할뿐이다。氏의 素質、敎養 그리고 그眞實한 態度에서 나오는 內在的인 藝術感은 到底히 他人의 追從을 許諾지안는다。

其外「슬탈프」에 빠저잇는 數人의 會員、精力的인大作을 發表하는 中間册夫水野伴一 熊谷登久平氏等의 作品에서「푸매니트」의 追突을 엿볼수잇다。

× × ×

다음 朝鮮사람의 出品作을 차저보겟다。이四百餘點가운데 九名의入選者를보게된것는 未曾有의 富消息이나 會場에서 볼때 그 存在가 너무나 히미하다는것은 창활 遺憾千萬이다。大體로 아직「현크보」오로나「에스프리」로다 너무 야든「레벨」에잇고(勿論 新進인만치) 注目비할만한 作品을 찾기 드물다。

作品을 들어보면

陳氏「集」相當한 手腕파 圖構를 가진作家로 미드며、金을의色調도 조흐나「프롤」에對한 追求가 不足하여 決定이업고 所謂가치「獨立展風」에 물들지안을가 念慮된다。

石熙滿氏의風景 無難한 作品이나、以後 한거름더나가 創興的인 寫生態에서버서나 適刊的이고 構成的인 튼튼한 作品을 보여주기 바란다。

洪逸杓氏「少女像」의 詩情파 氏가이미獲得한「고뽈르」을 기뻐한다。

金海氏「靜浦」寫實的인 風景安基豊氏「해와女人들」、意圖만은 알수 잇스나 "에상"의 不足을 느낀다。

其外洪俊明氏「玄武門」郭仁植氏「모던걸」永東杓氏「靜物」나의「母子」等이잇다 끗으로 二年間 무손히 出品해오던 李顯鴻氏의 入選않아 까워한다。

× × ×

이 熱意과 新銳한 態度에서나온作品의 誠意에서 엿는 新畫壇을 生覺해볼때 그곳에는 脈絡가안보인다。

印象派以後의畫壇에 對하여 獨立展이 十年間에걸쳐 해에對해서 朝鮮畫壇은「슬탈프」狀態엿다 勿論 數人의 眞實한 畫家들 가진 作家가 업섯다는것도아니지만 結果로보아 그러타고 안할수업는것이다。

確實히 朝鮮에잇서서 畫壇은 普及 文學의「장르」에 比하더라도 훨씬뒤떨어지고잇다。너무나 無氣力하다。

科學과닭ㄹ 藝術을 하려면 作家는 自己의 胸中에 그時代의 史料를 體驗해야한다。한社會에잇서서도 이 白紙를 默視하고 건너뛸수는업다。

外國에서 數十年間 段階的으로 解決해온, 우리는 한時代에 平面的으로 各人이 分擔해서 遂行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아카데미스트」「다다이스트」、「쥬一비스트」、「쉬一르레아리스트」、「레아리스트」다一조타 다一나의야겟다。

何如든 洋畫를輸入하여 우리것을만들고 그것에 依하여 우리의 思想 感情을 表現하려 하는以上 그正統의 軌道에올나설때까지 (더구나"레크니"의 征服을 向하여) 우리는 惡戰苦鬪해야 할것이다。

그러는中에는 大藝術도 나올게 大創作도나와 새로운 傳統을 세우게될것이다。

隨筆 失鄕記 (上)

李燦

밤停車場

마음의 故鄕을 잃은지는 이미 까마득한 옛일인것이나 離鄕以後 四年餘를어더 延命하던 韓口의故鄕마저일코마럿다。

달을뜨고 이를 마려해는 바도아니요 一朝 그무슨드끼바잇서 이를 斷行에옮긴것든바도아니나 이를테면 全혀 他動的이요 또한 奇緣이랄수밧게업다。

奇緣이라도 심술구즌奇緣인것이 허구만흔땅 허구만흔고장가운데 何必에 地名만으로도 감자、조밥을 聯想케하는 三水甲山을 窮勘케하고 허다한事業 허다한 職務가운데『출장사』를 選擇하여 또한 점지한것일가。

甲에對한 南方故鄕들의 글을보려 所謂『禁山』을讀하고향은疑像外의『마루이자』風景에 無意없는 邪卿와感興을 엇어보려기도하는것이나 나는 內心 아무런反應도 發見할수없음이 事實이고 그저 조창할수업는世事에 남의일가튼 一種 漠然한感慨가 자본한 안개처럼 멍한머리를 뒤덥퍼올뿐이엇다。

父母兄弟도 近親近戚도知己之友하나업는 나가튼人의出鄕에 그무슨 哀愁감이 잇스리만은 그래도 막상先親傳來 家垈什物마저 處分하고 호젓한 보따리 몃개를고 안고 이우고 지우고 늣가을구즌비내리는 밤기픈 故鄕길을 떨리 嶺을넘고도 넘어 北關山川을向하여 驛으로 거름을옮기는 내눈두던엔 나도모르게 몃번이나 가념린 이슬방울이 매쳇다 솔어젓다하엿다。

밤비는 구슬비 車窓에떠리고 어렵곳한 車窓을 숨이여 젓는 거리거리의明滅하는 閃閃燈、三角山봉오리의 낫이은미마 발언이 굽버보고 어린時節몸장구러· 西山두던의 실집이는러진 수양버들 손흔저어 見送하듯 미풍에흔들리이는 그하늘한 아지·아지여!

夜半餞送을 구지謝讓햇슴은 그들의安眠을위한 나의 善德만으로가아니엇다。

못노니 故鄕이여 北靑이여 네 어디 내게 衷心惜別노 전석을 단하나의 옷소매를 간직코잇단말이냐。

바리우는이업는 停車場을밤비는내리고 하염업시 비에 저즈며 車는 떠낫다。

北으로 北으로………

蒼茫千里

간혹咸北이라 讀記되어오는 벗들의글을對할때에도 여북 著名한곳이면 (그들有數層의 머리엔 道朋부터 模糊하라 원총일 地圖를 되밀어보고 겨우 차저낸다 理由도잇다 을모업는 나가는벗의 얇아 所信없는 所在에 그저런의誠意를 기우런준 그의友誼에 感泣할보다도 이가름 地域조차 遙遠하고 曖昧할수잇는 咸鏡北代의 偉力아메로 嗅ㅌ 보내지안흘수업다

사실 이고장이 自己存在를 南方人께 闡明할수잇는 唯一한期會는 그의 嗜好如何를 不問하고 隣近同類의 甲山과 作伴하여 그들의口角或은 罰規其他에 登場할때다。

三水 甲山!

밤香마저 비로소 그光芒을 도리켜볼수잇는 바되人불가지二水는 甲山과 짝지을때비로소 그슴名을覺認바는 榮譽를 自己것으로 할수잇는것이다。이가름 自己嘗品아는그때한때 南方市井에호르든桃色歌謠속에 與겨워一層을차지코저할때에도『너와나와살게되면 어디더라도三水甲山 감자먹고 조밥먹는 그속에라도…』로그는決코親友、甲山을잇지안엇다。

이른바 開化以前으로 감자와조밥만의 日常은 아니더라도 개꼬리 三年뒤야 黃毛못된다는路으로 古色、三水는 舊態가 依然하다。

三百戶도 못되는 호젓한 거리에 집조각、풍기의의용조그러진 지붕을 靑惡線서合에『帝帽』마저 끄리를감추어한닷 거리의 떠길도午前을앍기고 市場幅의 牛以上을 차지한 三水江 壯히觸觸는 安大하나 度量이여러그흔한流伐의 구성진노래 한구절 어더들을수업고 長明燈에도 인색한家家주녀가 夜中行路의 紳士淑女께 때로明頭燭田의 失禮를 賦物을 도리고도 泰然自若한 聽眠習性의 고을이기도하다。

다만 하늘만 한업시 푸르고까마득하고 소리개도 興味업시첫지안는 하늘이原始 그대로 한업시 푸르는고 까마득하고 이따금 뭐나이든 도시 황망히 떠도러오는몃장구름이 잇는가하면 이地帶特有의 一陣北風혹은 一陣驟雨 뒤쫏듯 달려도리말간히회모리가군한다。

千里異鄕 故鄕은 잡어려틀는 古懸속이름모를 아ㅣ련한 마음만갓고 오늘도를 고업는 내마음은 한을파러부러 無限한甩途의 航海를 계속한다。

"市內各中學"入試問題

中央中學

國語科(乙)

一、左ノ文ヲ讀ンデ(イ)(ロ)(ハ)(ニ)(ホ)ニ答ヘナサイ

或年、宗眞は旅のついでに靈之湯を訪れた。此所の谷、彼所の峰にはおそ咲の櫻が春の名殘をとゞめ、若葉の陰に鳴く鶯の聲ものどかである。鶯坂を過ぎれば、眼前には諏湖が神秘の色を宿して靜かにたたへ、富士は萬古の雪をいたゞいて頭上高く聳えてゐる。この(イ)悠久な自然に對して、(ロ)ゆくりなくも(ハ)彼の胸には、二十年前の昔がよみがへるのであつた。もしもあの時、蠶兵衛の救助が無かつたならば、今日再び富士の秀麗を仰ぐことも出來なければ、溫泉に浴して旅の疲をやすめることも出來なかたのである。(ニ)然るに、我が命の恩人蠶兵衛は既に此の世なく、(ホ)せめてもと思ふ妻子も消息を絕つて今は行方を知る由もない。そくくと湧く追慕と感謝の情に、彼は身動きもしないで立ちつくした。

(イ)宗眞ハ何ヲ見テ『悠久な自然』ト感ジタノデセウカ

(ロ)『ゆくりなくも』ト言ヒ添ヘタノハ何故デセウカ

(ハ)『彼の胸には二十年前の昔がよみがへるのであつた』ノ意味ヲ答ヘナサイ

(ニ)『然るに』トイフ言葉ノ中ニドンナ意味ガコモツテヰマスカ

(ホ)『せめてもと思ふ』ノ意味ヲ答ヘナサイ

二、次ノ傍線ノ所ヲソレ〲同ジ意味ノ他ノ言葉ニ直シナサイ。

例 先生が先程お見えになりました。(おいで)

夜はしんしんと更けて行く。

人の行手をさへぎつてしまふ。

隊中きつての働き手である。

自力更生の生きた手本があります。

醫師の手術を受ける。

器用な手つき。

住所を調べ出す手段に困つてしまふ。

世を救ふ手始として五人の友達をたづねた。

のみの手を休めない。

所所に手を加へて稿態を改めてゐる。

三、次ノ文ヲ解釋シナサイ。

輝く太陽の光にも、もえ初めた木々の綠にも、春のいぶきがいきいきと感じられる。春が來た、ものみなが新しい榮に向かふ春が來た。此の若き力に溢れる天地の春こそは、伸びゆく日本のすがたであらう。

四、次ノ文中片假名ノ所ヲ漢字ニ直シナサイ。

天氣圖によると天氣が(ヨ)(ソウ ソウ)されるばかりでなく暴風雨の(ハッ セイ)が分かるし、また(シン)(コウ カウ)の(ホウ ハウ)(コウ カウ)や(ソク ド)も(ヨ サツ)することが出來る。そこで暴風雨(シュウ シフ)ライの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ケイ)(ホウ ハウ)を以して、(サイ ガイ)の(ボウ バウ)に努めてゐる。

(丙)

一、左ノ文ヲ讀ンデ(イ)(ロ)(ハ)(ニ)(ホ)ニ答ヘナサイ。

或年、宗眞は旅のついでに靈之湯を訪れた。此所の谷、彼所の峰にはおそ咲の櫻が春の名殘をとゞめ、若葉の陰に鳴く鶯の聲ものどかである。鶯坂を過ぎれば、眼前には諏湖が神秘の色を宿して靜かにたたへ、富士は萬古の雪をいたゞいて頭上高く聳えてゐる。この(イ)悠久な自然に對して、(ロ)ゆくりなくも(ハ)彼の胸には、二十年前の昔がよみがへるのであつた。もしもあの時蠶兵衛の救助が無かつたならば、今日再び富士の秀麗を仰ぐことも出來なければ、溫泉に浴して旅の疲をやすめることも出來なかつたのである。(ニ)然るに、我が命の恩人蠶兵衛は既に此の世になく、(ホ)せめてもと思ふ妻子も消息を絕つて、今は行方を知る由もない。そくくと湧く追慕と感謝の情に彼は身動きもしないで立ちつくした。

(イ)宗眞ハ何ヲ見テ『悠久な自然』ト感ジタノデセウカ。

(ロ)『ゆくりなくも』ト言ヒ添ヘタノハ何故デセウカ。

(ハ)『彼の胸には二十年前の昔がよみがへるのであつた』ノ意味ヲ答ヘナサイ。

(ニ)『然るに』トイフ言葉ノ中ニドンナ意味ガコモツテヰマスカ。

(ホ)『せめてもと思ふ』ノ意味ヲ答ヘナサイ。

二、次ノ傍線ノ所ヲソレ〲同ジ意味ノ他ノ言葉ニ直シナサイ。

例 先生が先程お見えになりました。(おいで)

夜はしんしんと更けて行く。

人の行手をさへぎつてしまふ。

隊中きつての働き手である。

自力更生の生きた手本があります。

醫師の手術を受ける。

器用な手つき。

住所を調べ出す手段に困つてしまふ。

世を救ふ手始として五人の友達をたづねた。

のみの手を休め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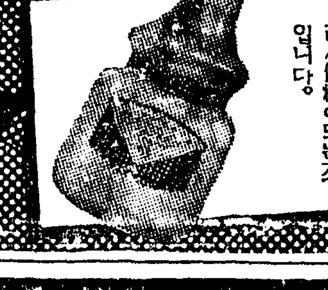
所々に手を加へて稿態を改めてゐ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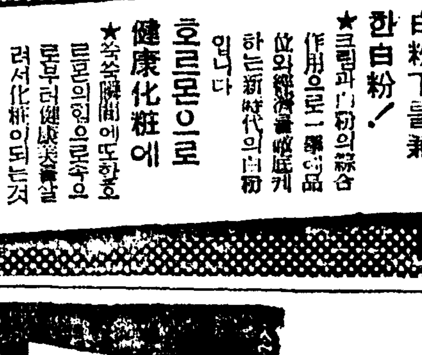
若返り便利白粉

クラブビシン (구라부비싱)

新紀元의몸치장料

簡便！一瓶으로完全化粧





白粉下를兼한白粉！

★크림과白粉의綜合作用으로一瓶의化粧品位의機能을發揮케하는新時代의白粉입니다

호르몬으로 健康化粧에

★急速瞬間에도한층호르몬의힘으로皮膚의健康美를살려서化粧이되는것입니다。

B-N3

新發賣

急性 慢性 淋疾

短期內服療法劑

化學療法의眞價 마침내發揮되다！

リンダリン錠 (린다링)

地球印

リンダリン은淋疾治療上一大革新을齎來한單一スルフアミド劑와更히飛躍的研究의所產인二基性スルフアミド劑를合理的으로配合한最新最優治淋藥으로서藥理相乘作用의理에依하여藥效는更히强化되고또한兩劑가서로다른長所를併有시켜서淋疾治療를完璧케한것입니다。

그卓效는이미幾多의臨床實驗에잇서서確認되고또한治療期間의顯著한短縮과아울러거기이副作用을認定치못하는것도本劑의特長입니다。

適應症

淋疾 腎盂炎 膀胱炎 扁桃腺炎 中耳炎 丹毒 敗血症 產褥熱 癰、面疔 其他化膿性疾患

二〇錠 三円　一〇〇錠 十二円

アース發賣元 アースタム本舖 株式會社 木村製藥所 兵庫縣赤穗郡坂越町 大阪 振替 神戶 一八〇六一 一四三番

英佛本位貨凋落 磅貨의情勢危急

金光淳

二十六日紐育爲替市場에는 依然 賣物이殺到하여드디어三弗六十 仙臺를 割込하고 休日前에比 하여 十四仙八分之七이란 大 幅低落을 示하더니 二十七日 에도 落勢不止이어서 드디어 五十仙臺를 割込하고 一時는 三弗四十四仙四分之三의 低價 를示하여 磅貨動은 자못急迫 을告하고잇슴을 말하고잇다。現下의 本位貨危機는 一九三 一年의 英國의 金本位停止와 그에伴하는 弗其他의 本位貨 恐慌에서 發端된것인데 一九 三一年에 잇서서 英國은 이 미 二次에 亘한 本位貨危機 를겪고 一九三三年의 米國銀 行恐慌의 滲動을 바더 一九 三三年一月에 잇서서의 英米 크로스의 最低價는 三弗三十 三仙二分之一이엇는데 今般의 三弗四十四仙臺의 低價는 實 로이때以來의 低價로되어잇는 것이다。

○……○

今般의 磅貨의 直接原因이 된것은 지난三月八日 公布된 英國의 第二次爲替制限令이 드 디어 二十五日부터實施를보게 되엇스므로 磅貨의前途에對한 悲觀人氣가 瀰漫한까닭이라하 는데 이爲替制限令으로써 磅 은所謂封鎖磅으로 이른바 世 界通貨의 封鎖磅으로轉換 되어 그使用範圍가 極히狹隘하 게된것이다。

이爲替制限令에 依하면 다음 의二點을規定하고잇다。

一、英本國及 英帝國內에잇서서는 皮革類、錫、위스키ー、고무、黃麻等의特定商品은 벌가、달라ー、瑞西法、米弗等의外貨에依하여 支拂되지안는限輸出을不許함

二、그輸出許可를주는 仕向地는 南北米(加奈陀及其他英佛系、和蘭及 同國의植民地、瑞典、白耳義、…)에限한다는것이다。

이로써 磅貨의『封鎖』의度는 一層노피게된것으로 歐洲戰亂 前까지라도 一定程度의 國際 性을가지고 弗과併立하여 世 界通貨의 覇權을잡고잇던磅貨 는 完全히 國際通貨로서의役 割을 擔當키가 不能하게될危 險까지잇게된것이다。

○……○

그러면 戰爭遂行中에잇는英 國에서 自由磅의 低落을招來할 것은 어느程度까지 豫想치못 한것이 아니엇든가 爲替制限을 强化한 理由는 外國의 英國 品輸入業者들이 紐育市場에서 低落한 低價의磅으로 英國人 代金을 支拂할것을 阻止하여 英國의輸出代金을 그대로 外 貨대로 獲得해서 戰爭經濟에 備 하려는데잇는것이다。

그러면 磅貨의 低落은 現 在英國이 直面하고 모든經濟 的困難의 集中的表現이고 將 來部門에잇서서의 犧牲을하더 라도 다시말하면 어떠한 重大 한것이 잇슬것이다。 그리고 이미『인풀레』의加速度的進展 을보고잇는 英國國內 物價에 對하여反響도 決定的일것인데이 러한 磅貨的困難은 어데서도 若 干의『余裕』이라할만한것을 할 수는잇슬모양이다。低價는輸 出을促進하는데는 妙方이다。 獨逸米의 積極攻勢에 北歐 에서밀리에서 南米에서 市場 을 連續的으로 喪失하고잇는 英國輸出産業에 對하여는 磅貨 暴落도『死의舞蹈』이될수잇슬것 이다。

○……○

그러나 그보다도 磅貨暴落 이波及하는 波紋은 全世界的인 것이다 世界의爲替市場은 勿 論世界의金融經濟市場가 各國各 國의混亂을 맛게될것이니 此 點에 磅貨暴落의 最大問題가 잇슬것이다。

다만 이같은狀況을보고 至 今에잇서서는 有名無實로된英 米佛三國協定의 精神에依하여 米國이 何等의救援工作을 하지 안을가하는點도 考慮되나 現 在는 希望程度에 지나지못할 것이다。

그리고 磅과一蓮托生인 佛 蘭西프랑도 歷史的인 新低價 로暴落을 告하고잇는데 프 랑은 도프랑으로서 磅보다더 한 困難이잇스니 英佛의 本 位貨의 凋落을 告하는 吊鐘 으로서 今後의推移가 極히注 目되는바이다。最後로 我國의 圓에對한 反響도 甚大한것이 잇슬것이나 아직은 形勢觀望程 度에그치고잇는모양이다。

磅貨落潮去益尤甚

歐洲戰亂은通貨戰으로激化

三弗五十仙臺割의大慘落！

프랑貨歷史的新低價

【紐育二十七日發同盟】紐育外國 爲替市場에 잇서서의 磅貨의落 調는 去益尤甚하여 二十七日에 는 드디어 三弗五〇仙台를 割 하여 一時는 三弗四四仙四分之 三으로 一九三三年 八月以來의 低落도下落되고 그後 回復되엇 는데 最終레ー트는 三弗四九仙 八分之三으로 四仙八分之三 低 를 示現하엿다 磅貨에對하여는 別로 多額의賣物이 나오것은아 니나 如斯히 暴落을演한것은買 物이 이보다적엇던 까닭으로지 난二十五日의 英國爲替管理 强 化實施에 依하여 磅의 使用範 圍가 非常히狹隘化 되엇스므로 常地爲替業者는 磅貨의 前途에 對하여 悲觀的見解를 가지고잇 고 또 實需關도多少라도 가튼 悲觀的態度를 取하고잇는 一方 佛蘭西法貨도 磅貨의 急落에따 라 暴落되어 最終레ー트는一仙 九八로 前日에比하여 포인트十 六分之三低를 告하여 歷史的新 低價로 低落되엇다 但其他의諸 通貨는 大概安定을 示하여加奈 陀弗은 磅低와反對로 堅調이어 서 最終레ー트는 도리어八十一 仙二五로 前에比하여 三七五포 인트 昂高되엇다

貿易上重大支障이면 弗、磅兩建採用？

그러나當分靜觀態度

【大阪電話同盟】紐育市場의 磅 貨崩落에伴하여 我對英市勢도上 昇一途에잇다 二十六日에는 드 디어 一志三片八分之 七로一九三 二年以來의 新高價를 示現하고 先物은 一志四片臺割을 演키어 至한結果 我爲替政策上 어떠한 對策을 講究할것이라는 意見이 相當히 各方面에 擡頭하고잇는데 右에對하여 住友銀行 常務十艦 毅次氏는 如左히 말한다

歐洲大戰이 依然進行中인 限 磅의 實勢는 弱含을 難免이다 따라서 紐育의 크로스레ー트에 我對英市勢의 基準을 두고잇는 以上對스타ー링레ー트의 大幅變 動은 當然한것으로 不得已하다 그러고 이程度의 爲替市勢의變 動도 直時貿易狀態에큰 影響을 줄것으로 생각되지 안으므로應 急措置를 講究할 必要를 認치 안는다 그러나 今後去益對英市 勢가 高騰되고 그것이貿易上 重大한支障을 招來하게되면 어 떠한方法을 講究하여야 하겟다 그境遇 我國으로서 크로스레ー 트로부터 斷然히 다시弗及磅의 兩建에依하는以外에 方法이업다 고 생각한다 그것은 日英間에 爲替協定을 締結하는 것이 先決條件인것은 勿論이다 何如間 現在로는 이程度의爲替 市勢의 變動이直時 對스타ー링 關係의 前途에重大한 支障을與 할것으로는 생각되지안흐나 輕 輕히 判斷할수업스므로 當分이 래도 靜觀할것으로 생각된다

鮮銀建値 一志四片八分一

鮮銀의對英建値는 드前日에比 하여 四分一高인 一志四片八分 一로 引上하여 新高値이엇다

全國手形交換大會

今年의 全國手形交換所大會는 來四月十五日 東京에서 開催되 는데 京城組合銀行에서는 松原 鮮銀總裁、林殖銀頭取、堀商銀頭 取、野田漢銀頭取、河口東一銀行 專務、三支店銀行支店長等이 出 席하리라한다

兌換券收縮率 昨今顯著鈍化 平均八億膨脹

【東京電】金融緩漫의 浸透、現金 取引의 旺盛、物價高 等으로因하 여日銀兌換 券은 顯著 히膨脹되는 反面에 其收縮率은 鈍化傾向에 잇는데 이러한狀態는 今後도繼 續될것이다 昨年一月以來 今年 二月까지의 平均發行高를보면如 左하다(單位百萬圓)

一月	二、五九五	二月	二、三三三
三月	二、二七八	四月	二、三一四
五月	二、〇九〇	六月	二、三〇六
七月	二、三八六	八月	二、三三三
九月	二、三七八	十月	二、五四九
十一月	二、六四三	十二月	三、一〇四
一月	三、〇六一	二月	三、〇七七
三月最低	二、八九七	週末	二、九七七

以上과가치 昨年中에 잇서서의 最低는五月의二十億九千萬圓이며 最高는 歲末의三十一億四百萬圓 인데 今年은三十億五、六千萬圓 으로昨年의 最高와거의 匹敵하 며도前年同期에比하면 八億以上 의 膨脹으로서 얼마나 激增히浸 透하엿는가를 類推할수잇다 따 라서三月도依然히 收縮率은鈍化 되고잇다

支那新政權과大陸經濟展望 ⑤

資源開發의前途

資金勞力調達에注力

事變後、支那占領地域에進 出한 我資本은 적지안흔데 거의全部國策的立場에서 國 家資本이 參加하여 昭和十 三年北支에 北支那開發、中 支에中支那振興의 兩社가設 立되어 前者는 重要企業의 統制的運營、後者는 公共施 設의復興을 使命으로한것이 다 그事業現況은 後述하는 바와가튼데 其傘下直系會社 는모두 日支合辦組織으로서 支那法人이다 이러한點으로 부터보면 新政權이 成立된 後 兩國策會社及直系會社를 어떠케取扱할것인가에 對해 서는 議會에서도 問題가되 엇섯는데 政府에서는 別로 變更시키지안는다고 明示하 엿다 따라서兩社、其直系會 社는 新政權下에서도 事業 을 繼續하게되는것이다。但 中支那振興은 目標로한事業 이 大體로 結成되어잇고 北 支那開發도旣定計畫과같이 産 業部門을 統轄하其以上의進 出은하지안코는其後는支那 民族資本의 復歸를기다리어 그들의 活躍에 一任하게될것 이다 單只旣定經營事業中鐵 道는 新政權의 直營으로될 지가問題될것이다 和平條項 에잇서서는 此點이 規定되 어잇는것으로보인다。

그러면 兩社의現況은어떠 한가 北支那開發은 直系會 社로서 華北電信、電話（資 本金二千五百萬圓）華北交通 （三億圓）龍烟鐵鑛（二千萬圓） 華北鹽業（二千五百萬圓）大同 炭鑛（四千萬圓）華北電業（一 億圓）等이 이미 設立되엇고 남겨진것은 石炭의地域別六 社 製鐵一社（或은二社）等이 다。

北支는所謂 地下資源이豊 富하므로써 事變以來 其資 源獲得競爭이演出되엇든만큼 其地圖를보면 其開發條件은 石炭이나 鐵이나 그닷지조 치못하다 英國資本이掌握하 고잇는開灤炭鑛外에는 對日 供給을 目標로하고생각해보 면 運輸搬出의點에 만흔制 限이잇다 炭鑛其自體에는治 安上에 不安이 아직도잇고 開掘할資材가 不足되는데다 가 輸送經路、能力港灣設備 에制限이잇다 十五年度에는 石炭의對日供給을 五百萬噸 （其中開灤炭이半分이다）豫定 하고 井陘、中興等의增産을 急히하고잇지만 港灣設備가 이에伴하지못하고 龍烟의鐵 鑛石이나 大同炭도 輸送力 에制限이잇서 豫定대로 搬 出하기가 困難하여 膨大한 石炭資源도 日本의石炭飢饉 을救하기어렵다。겨우對日供 給量을 確保하고잇는것은長 蘆鹽四十萬噸인데 이것亦是 鐵鑛石、石炭等과 併行하여 積出하게되므로 船舶準備가 큰일이다。電業、電信、電話 가 比較的順調로운外에는資 源開發은 아직도 本格的이 라고할수업고 全力을 다하 여 對日供給量을 確保에努 力하고잇스므로 其出資會社 가 不足의深刻하때도잇다。다 음으로 中支振興에서는 直系 會社로서、華中鑛業（二千萬 圓）華中水電（二千五百萬圓） 內河輪船（二百萬圓）華中電氣 通信（一千五百萬圓）上海恒産 （二千萬圓）華中鐵道（五 千萬圓）華中水産（五百萬圓）大上 海瓦斯（三百萬圓） 華中蠶 絲（一千萬圓） 淮南炭鑛（一千五百 萬圓） 華中鹽業（五百萬圓） 華中輪船（二千萬圓）等이 設 立되어잇고 이外에 上海住 宅組合 法幣基金組合等이잇 다。

其事業內容은 大體로上海 를中心으로하여 南京、杭州 의鐵道沿線、揚子江下流로限 定되어잇는것은 治安關係上 不得已한 事情이라고는하나 이會社는 支那民族資本及第 三國資本이 優勢한中支那、 特히上海를中心으로하고 이 것도 主로邦人區域에限定되 어잇는것은 會社의規模가 적 음을直感케한다。生産事業關係 事業으로서는 鑛業、鹽業、 蠶絲에止하여 中支에잇서서 의 邦人資本의 進出을 말로 서의 存在가될수업는것은勿 論이다。事業의現況으로서는 그다지 볼만한것이업고 特 히 對日關係에잇서서는 鐵 鑛石을 供給하는 以外에는 寄與하는것이업다 鐵鑛石도 十五年度에 百萬噸을 豫定하 고잇는데 治安、配船等의關 係로이것도 完遂치못할것이 다。石炭도目下는 三井、三菱에 서淮南炭鑛을 復興作業中이 므로 現地消費量을 充當하기에 도不足하며 鹽은十萬噸程度 는對日供給을 實行할수잇는 모양이다 左右間兩國策會社 는 占領地域內의事業인만큼 豫期한바와가튼 成績은거둘 수업슬것이다。外支側의資本 은거의 參加하지안코 支 那側出資는 모두政府名義로 되어잇서 實質的參加라고할 수업스므로 獨力으로서資金 資材 技術 勞力을開發 振 興모든條件을 充足해나가 야할 苦痛이잇다。新政權이 成立된後일지라도 當分間은 이러한狀況이繼續될것이다。（完）

預金利下正式協議

實施는五月一日부터

朝鮮內銀行의 預金利下는 二 十八日 正午부터의 木曜會에서 甲乙銀行側의 態度에對하여 協 議하얏는데 當日은 適當協議한 乙銀側으로부터 그結果를 報告 하고 이에基하여 甲乙銀으로서 의態度를 協議決定하고 그다음 總督府에 具申키로 될모양인데 金融組合 信託 貯銀側의 이에 對한意向을 聽取할必要가 잇고 또 目下 金融情勢로보아 早急 히 實施키는 困難한事情이잇서 大體 五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될 모양이다

漢江水電建設 資材入手完了

漢江水電의 建設工事는 目下 着着進捗되는中인데 今般林專務 가 渡東하여 關係各方面과 協 議한結果 大口機材의 註文도 支障 업시되고 其他一般資材도 順調 롭게進行되어 資材에關한準備는 一切完了되엇스므로 十七年末에 는 工事가竣成될豫定이며 明年 度末에는 淸平에서 六萬KW의 發 電이 可能하게되엇다 目下淸平 華川間에잇서서의 땜工事의 假 마감을하엿는데 解氷期와 同時 에콩크리ー트 堅固히하기로 하엿스며 華川땜으로부터 發電 所에이르는 山腹에는 延長七百 米의 隧道二本을貫通하여 繼續 工事中이다

華北車輛發起人總會

【東京電話同盟】華北交通及三 菱重工業、住友金屬工業、三井多 摩造船所、日本車輛、大阪機械製 作所其他日滿各車輛메ー카ー의共 同出資에依한 華北車輛會社에서 는 廿三日 滿鐵東京支社內에서 發起人總會를開催하고 正式으로 事業計畫을承認하엿다 뒤이어同 社의資本金을 三千萬圓으로하고 그出資比率은 華北交通八百萬圓 日滿메ー카ー側二千二百萬圓으로 우선鑄鋼及山海關에잇는 華北交 …

端川燐灰石開發 朝窒의先願이問題

咸南、端川의燐灰石鑛의 開發 에對하여는 朝鮮窒素肥料의關係 肥料會社에서 開發準備組合을結 成하고 四月부터 調査를開始하 여 右調査結果에基해서 開發會 社設立의大綱을 決定할豫定이다 그리고同鑛區에對해서는 朝鮮窒 素가 鑛區로서 先願하고잇서 其後朝窒은 同鑛區內에잇는 燐 灰石의開發을 計畫하고 興南에 서 이미製鍊計畫中인바 이先願 을無視하여 總督府가 別個의開 發方針을決定한것에 朝鮮窒素의 …

朝鮮向解禁

禁輸中의滿洲飼料

滿洲國에서는 通殿大連에서某 社의 不正事件에依하여 飼料原 料는勿論、粉末飼料라도 一切禁 輸와가튼許可制를 實施하엿스므 로 朝鮮內輸入의 粉末飼料도二 月上旬부터 三月上旬까지 約四 十日間一頭의 入荷도업서 朝鮮 內家畜飼料에 重大한 影響을주 고잇섯는데 總督府의 政治的交 涉에依하여 粉末飼料만은 臨時 期關係를 考慮하여 三月十一日 부터 輸出許可를주기로하여 目 下積出되고잇는데 粒飼料는鮮滿 에轉換될것을 憂慮하여 許可되 지안헛스나 總督府의 販賣技師 가 渡滿하여 折衝한結果近間積 出되게될것으로보이는데 入荷의 遲延은 朝鮮內의 家畜飼料에重 大한影響을줄것으로憂慮되고잇다

大興海運設立【神戶電話】

大同海運의 四國에서는 支 同船舶下에 支那航路船舶의 集 約統制를 目的으로하는 海運會社設 立을 急히하든바 二十六日 京城에서 創立을 終了하고 近間認可를 申請하게 되엇다

社名 大興海運株式會社 資本 金 十九萬五千圓(全額拂込) 本社 神戶

原價計算講習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來四月 八日부터 同十三日까지 每日午後 七時부터 同十時까지 第二會議 室에서 朝鮮金融組合聯合會調査 課長 吉川義弘氏를招聘하여 第 五回原價計算講習會를 開催키로 되엇다 卽京城府內居住의 工場 主及幹部와 原價計算係로서 申 請先着順八十名에限하여 聽講케 할터인데 來四月五日까지 同會 議所業務課에申請하라고한다

되고 月末인데다가 配金關係가 移動되면 兌換券은 一層膨脹될 것이다

南鮮水力陣容

南鮮水力 電氣에서는 二十七日午後三時부 터 東拓朝鮮支社에서 創立總會 를開催하엿는데 資本金은 一千 …

叺生産豫定

配定의五四%에不過

朝鮮內叺增産에對하여는 刻下의緊 急事인데 昨年十一月부터 今年 十月까지의 昭和十五米穀年度中 의 各道의 總生産配定에 對한 生産豫定率을보면 咸南의 七七% 가 最高이오 平南의 二七%가 最低를 示하여 叺의 製作地인 主要生産地인 全南은 겨우三〇 %에 不過하다 合計는配定에 對 하여 五四%의生産豫定밧게樹立 되지안코 總督의 緊急措置가업 는限 前途는 憂慮되는데 各道 生産豫定率은 如左하다(單位%)

京畿	六〇	忠北	七一
忠南	七四	全北	五一
全南	三〇	慶北	四〇
慶南	四三	黃海	五四
平南	二七	平北	三六
江原	七〇	咸南	七七
咸北	―		
合計	五四		

滿洲農産造成計畫

五千萬噸目標

【新京二十七日發同盟】滿洲國政 府는 本年度를 起年으로하는 農 産造成十個年計畫을 樹立하엿는 데 그具體的內容에對하여는 今 回開催된 全國省長會議에서 愼 重討議하여 現地實情에 卽하도 록 充分地方側의意見을 徵할려 이다 그增産目標도 產業開發五 個年計畫에依한 增産目標를 二 千五百萬噸의二倍 五千萬噸으로 하는 大增産計畫이다 政府는 省 長會議終了後 卽時 右目標實現 에對하여 諸般의準備에 着手하 는데 各省長側에잇서서도 中央 의方針을體하여 縣下各機關과의 緊密한 連絡協調下에 現地民情 에適應한 技術的指導 總動員하 는同時에 民衆의啓蒙指導工作을 全國的으로 展開하기로 되엇다

滿洲日貨起債高 二億三千五百萬圓

【新京廿三日發同盟】來四月부터 六月에이르는 本年度第一半期에 잇서서의 滿洲國關係日貨(公債의 發行)는 日本興業銀行과 折衝中인데 滿洲國側에서는 同期中에 잇서서 의 日本起債市場의狀況을 考慮 하여 總額二億三千五百萬圓으로 한希望을 出하엿다 …

人絹絲配定問題

設備主義로決定

昭和十五年度人絹絲配定問題는 從來의實績主義를固執한 二部制 의大會社側과 設備主義를主張하 는 小部制의 朝鮮人絹織物工業 組合에서는 二月下旬以來 數回 에亘하여 協議를重하여 … 設備主義 採用키로되 엇다 …

織維元卸商組合 役員決定

朝鮮纖維元卸商組合에서는 二十六日創立總會를 京城에서 開催하엿는데 役員은如左히 決定되엇다

▲理事長 日本棉花 佐佐木氏 ▲理事 日本棉花 伊藤忠 伊藤萬 田村駒 又一 丸紅 東洋棉花 瀧定 丸宮 瀧定 三共 ▲監事 高瀨 瀧兵

貿易協會總會

朝鮮輸出入貿易協會에서는 三十 日午前十時부터 貿易協會에서는 同日午後三時부터 모두總會를開 催하고 左記議案을 附議한다

一、明年度豫算案의件 二、同 事業計畫의件 三、役員任期滿 了로改選의件

朝鮮油脂에서 延吉炭鑛買收

朝鮮油脂에서는自 給用石炭의 確保를하고저 前부터 滿洲國 間島省延吉縣在의 炭鑛礦區를 買 收하려고 折衝中이던바 三十萬 圓으로 買收에 成功하여 이에새 로이 三十萬圓을 投하여 探炭設 備를하기로되어 이에滿洲國의 資 金調整法에 依한認可를 얻고 總督 府에對해서도 同認可申請中이 더바 廿七日附로 認可되엇스므 로 十二萬三千噸出炭目標下에 採炭 을開始하기로되엇다

經濟界消息

○甲和會(三氏出席)=今年의甲 和會(有力株式業者三氏組織)는四 月七、八日兩日間伊豆長岡溫泉에 서 開催되는데 朝鮮에서는 新 田義民氏外에 內海淸藏、田中鎭次 郞兩氏가出席하고 新田、內海兩氏 는 四月一日渡東한다

○高周波經理課長會議=日本高周 波重工業에서는 二十四日부터 五日間에亘하여 京城 本社를 爲始하여 東京、富山、城津各 工場의 經理課長을 召集하고 서 經理課長會議를 開催中

○高橋省三氏(日本高周波專務)渡 東中四月二日歸任

朝郵異動

朝鮮郵船에서는 四月一日附로 如左한 異動을行 키로되어 二十八日에發令하엿다 ▲營業課長 副參事 遠山淸 任 參事▲大阪出張所長 副參事 山 口三郞 任參事 命大阪支店長▲東 京出張所長 副參事 廣原不二男 任參事 命東京支店長▲營業課 業務副長(各通)▲會計課副參事 高橋謙司 命營業課副長 谷辛次 命會計課副長 ▲釜山支 店書記 日比猛 任副參事 ▲淸 島駐在員 津守滿一 任副參事▲ 淸津出張員 石坂久治 任副參事 命淸津出張所長 ▲仁川出張所主 任 小倉野忠男 命仁川出張所長 ▲大阪支店書記 山本登 命天津 駐在員

十鐵

▼…朝鮮內의 三億貯蓄目標 는 一月末에써達成、요사이 돈 도라다니는것을보면 三億의 배 倍도可能。

▼…돈이 새생기는사람도 貯 蓄을해야겟지만 잇는사람들 좀 더만히 貯蓄하시오、自身을爲 하여 國家를爲하여 延하여는 업는사람을爲하여。

▼…食堂마다滿員、料亭마다 가득가득、消費品은 高級品으 로 消費節約은 交響佛、이왕 이면 遊興飮食稅、奢侈品課稅 가튼것을 눈에뵈이 나도록할 勇氣는업는가。

▼…內地에서 農村、商業 을사다사다못해 朝鮮에까지와 로카ー가 나와단니잇다。돈 주체못하는 이떠위양반들에게 强制로 貯蓄시키는것이 第一 妙案이如何。

今日財界 廿八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米 … [illegible]
◆砂糖 大錢 一六〇斤 … 機製 三三〇斤 … 大日 二四〇斤 … [illegible]
◆株 朝新 … 東新 … 鐘紡 … 鐘新 … 棉花 … [illegible]

株式 高價不續 頭重

今日의市勢 二十八日

前場軟調

今朝도 依然히 新株가업서 雙方이모두 消極的 이어서 東新一高인 百四十圓八 錢新不變인 百十三圓丁에 凡鋼 寄付後 買氣가全然업고 鐘紡賣 物이 多少보이어 結局東新百三 十九圓九 鐘新百十一圓二로 軟 化大引

後場頭重

後場는 東新百 四十圓四 鐘新百十一圓七인各其 五錢高로 寄付後伸惱모양이엇다

高價買警戒

昨日後場 東京의 當限落後집 이가버워저 若干의買氣가 나와 東新은 百四十一圓臺로 一躍을 演하엿스나 今朝는그뒤를이어 市百四十一圓臺門을 突入하여 高 價에對하여는 依然警戒가尤甚함 을表示하고 잇섯다 그러데오래 동안 支離한保合을 거듭하고잇 는市勢에 對하여는 月末로看在上 放分技가 잇슬것을 期待하는氣 分이有力하엿스나 亦是內外情勢 에對한 透視難이深甚하므로 積 極的으로 손대기를 躊躇하고잇 서 何等의刺戟材料가 實現하기 를 待望하고잇섯다

市場十感

株……歐洲情勢는 프렌넬會 談以後 別다른進展이업고 新 中央政權도 成立後의 事態를 注視하고잇스므로 無材料의無 風狀態▲當限落後에 東新은二 膊을示하기는 하엿스나 亦是 高價員의 時期가아님을 表示 ▲東新은 百四十圓附近을 第 一의 安居處로삼고 움지길줄 을모르고잇스니 딴한일▲이春 眠狀態에서 覺醒하려면 强烈 한 刺戟材의 突現이必要

延取 亦是不成 休商

前場沈默 今朝도 亦是賣買가업는據開 商狀이엇다 後場同調 後場도 無商談 으로 賣買止하엿다

物價

果物類强調

… 金柑石油箱에는 四十錢高 인 大圓八十錢乃至 七圓丁으로 各其昂騰이엇다

菜蔬類昂騰

支那白菜는 豫 期에入하여서 需要가 旺盛하여 一等에十貫에 二圓乃至一圓五高인 十三圓乃至十三圓五十錢 玉葱은 五十錢高인十三圓乃至十二 圓으로昂騰되엇는데 토마도一箱 에는 三十錢低인 二圓七十錢乃 至 二圓二十錢으로 軟勢이엇다

海草類價格

沙草價(秋蒙) 은 今朝 多少의入荷가잇서 百 手에 十圓低인 百十五圓丁 新 沙草紫은 百手에 五圓低인 百 八十圓으로 低落되엇다

烏賊魚昂騰

烏賊魚市勢는 百斤에 四圓高인 百五圓丁으로 强調이엇다

現物强調

現物은資源 株를中心으 로한買氣로 活況을呈하여 今朝 는池貝鐵이三圓高인四十九圓 菱重은 二圓高인五十六圓이엇고 朝鮮無煙炭이 四圓突高인七十四 圓五까지昂進되어 注目을끌엇다 其他國産自動車 朝石新도一圓五 가량上昇되엇다

吉村榮左衛門商店 京城黃金町 [illegible]

今日現株市勢(正午調)

◇朝鮮內株式 鮮銀新 殖銀 京春鐵 朝鐵 同四新 大同産業 朝陽鑛 京南鐵 漢水電 京電新 西電 南電 中央無盡 國産自 製鍊 無煙炭 小林 全羅鑛 三陟開 막네 朝紡新 高周波新 朝石新 東拓新 弘中新 [illegible]

◇內地株式 日實 帝人新 日曹 日石 九曹新 日曹 日鑛新 三菱新 郵船 帝産新 商船 同新 航空新 同新 阪洋新 東工新 日立新 池貝新 神戶新 小倉新 鋼管新 特鋼 淺野新 川崎新 堅業新 日窒 沖機 水産新 [illegible]

◇滿支株式 滿鐵 東邦 東亞新 錦州 大同新 日滿新 [illegible]

東京國債 ▲甲號五分 一〇六、〇五 ▲二十三年物 九八、七〇 ▲二十八年物 九八、二〇

海外經濟 廿七日 [illegible]

銀行券 廿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京城 ◆東京 ◆大阪 [illegible]

對外爲替 對英 一志四片八分一 對米 二三弗一六分七 [illegible]

株式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大阪長期 [illegible]

棉花 ◆大阪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illegible]

綿布 ◆大阪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illegible]

生絲 ◆橫濱 ◆神戶 [illegible]

豆油·豆粕·麥粉 ◆阪神綿油 ◆阪神豆粕(十枚) 大豆 三月 四月 五月 六月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三國志 (142)

韓龍雲 譯 熊超 畵

許都逆伐와五關斬將

관공이 말하되 「나를 어찌족히 이르리오 나 의아우 장익덕은 백만군중에 서 상장의머리 취하기를 주 머니에서 물건을 끄내듯 하 노라」

조조가 크게놀내어 좌우를 도 라보며 말하되 「이후에 만일 장익덕을 만나 면 가벼이 대적하지 못하리 란」 하고 입는전포의 옷깃속에다 써서 기록하엿다。

안량의 패한군사가 다라나다 가 중로에서 원소를만나 보하 되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고 큰 칼을쓰는 한장수가 필마로진 에 드러와 안량을 베혀가므 로 크게 패하엿나이다」

원소가 크게놀내어 뭇되 「그사람이 누구뇨」

저수가 말하되 「그는 반드시 유현덕의 아우 관운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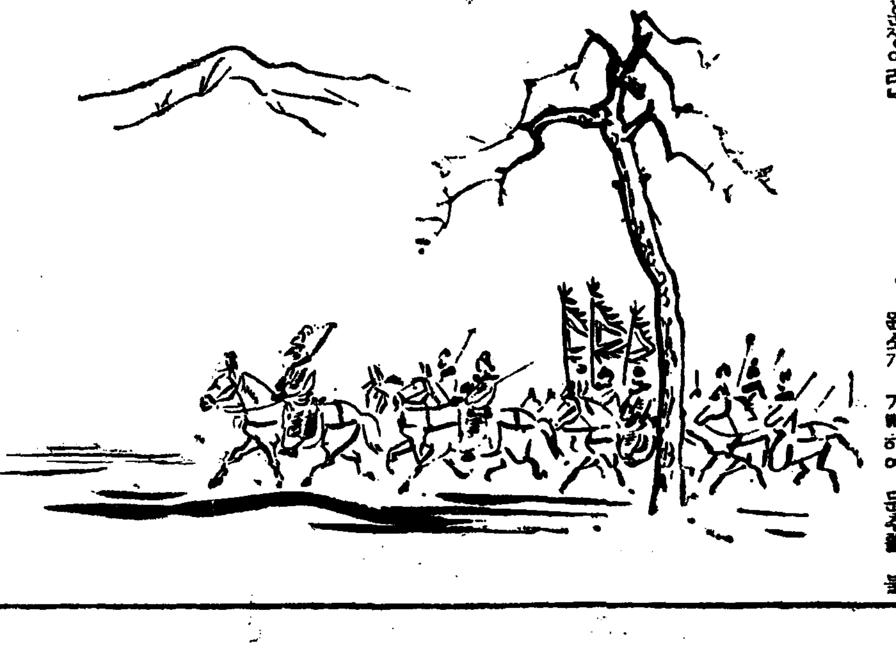
허도(許都)에 돌처고 군사를 딴고에 나누어야 상책 이될지어늘 가벼히 황하를 건 넛가 만일 변이잇으면 군사 가 놀히 도라오지 못하리란」

원소가 노하야 말하되 「너의 무리는 군사의 마음을 누구러지게하고 세월을 천연 하야 큰일을 방해하는도다 어찌 군사는 신속한것이 귀 하다는말을 듯지 못하엿너뇨」

저수가 나가며 탄식하되 「위에서는 저의뜻만 채우고 아 래에서는 공만 힘쓰니 길 고긴 황하수를 내가어찌 건 너리오」 하고 병도렷다 일을 의론하는데 나가지 아니하엿다。

현덕이 말하되 「내가 큰은혜를 입고도 가풀 수가 업스니 문일군으로 더 부러 가치가고자 하노니 첫 재는 명공의 은혜를 갑고자 함이오 두째는 운장의 확실 한 소식을 탐지하고자 함이 로라」

원소가 기뻐하여 문추를 불



원소가 크게노하여 현덕을가 리치며 「너의아우가 나의 사랑하는장 수를 베엇스니 네가 반드시 부동한것이라 너를두어서 어 듸쓰리오」 하고 도부수를 불러서 현덕 을 끄러내어 베이라 하엿다。

현덕이 조용히 말하되 「명공이 한편말만 듯고서 전 날의정의를 끈코자 하너뇨 가 서주에서 헤어진뒤로 아 우 운장의 소식을 알수가업 고 천하에 모양 가튼자가적 지아니 하거늘 어찌 낫이붉 고 수염이 길다고 다 관운 장이라 하리오 명공은 어찌 살피지 안너뇨」

원소는 주장이업는 사람이라 현덕의말을 듯고 저수를 책하 되 「그릇 너의말을 듯고 조흔사 람을 죽일번 하얏도다」 하고 현덕을 청하여 장막위 에서 안량의원수 가플일을 의 론할새 장막아래에서 한사람이 나서며 말하되 「안량은 나로 더부러 형제와 갓더니 이제 조가 도적에게 죽엇스니 내가어찌 한을풀지 아니하리오」

현덕이 그사람을 보니 키가 크고 얼굴이 해태 가트니 하북의 이름난장수 문추라 원 소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되 「네가아니면 안량의 원수를 놉 히갑지 못하리라 내가 십만 군을 줄터이니 황하를 건너 서 조가도적을 쫓쳐죽이란」

저수가 말하되 「그러치 아니하도다 이제마땅

러서 현덕으로 더부러 가치전 부를 거느리라하엿다。

문추가 말하되 「현덕은 여러번패한 장수니군 중에 이롭지 못할지라 그러 나 주공이 보내고자 할진 대 군사 삼만을 나누어주어 후군을 삼으리란」

문추는 칠만군을 거느려 먼 저 행하고 현덕으로 삼만군을 거느려 뒤에따르게 하엿다。

조조가 운장이 안량을 베임을 보고 배나 공경하고 사랑 하여 조정에 아뢰어 한수정후 (漢壽亭侯)를 봉하고 인을 만 들어 운장에게 보내엿다。

「원소가 또 대장 문추로하여 금 군사십만을 거느리고 황 하를건너 이미 연진위에 웅 거하엿다」 하니

조조가 먼저 사람을 보 내어 백성들을 서하(西河)로 옴 긴뒤에 스스로 군사를 거느 리고 마질새 영을 나려어 후 군으로 전군을삼고 전군으로후 군을삼아 양초를 먼저보내고군 사를 뒤에잇게 하엿다

여건이 말하되 「양초를 아페 보내고 군사를 뒤에 보내는것은 무슨뜻이뇨」

조조가 말하되 「양초가 뒤에잇스면 약탈을당 하기 쉬운고로 아페가게 하 엿노라」

「만일 적군을만나서 겁탈하여 가면 어찌하려하고」

「적군이 이르면 다시 처치하 리란」

여건이 의심하여 결단하지 못 하엿다。